






제6회
중국연변

이
육
사
문
학
제
자
료
집

The 6th China Yanbian Lee Yook-sa
Literature Festival Data Collection

2016. 9. 22 - 25

중국 연변, 하얼빈

• 주최 :  경상북도  안동시 • 주관 :  (사)이육사추모사업회 연변작가협회

• 후원 :  예미정  안동병원 연변대학교

2016 제6회 중국 연변 이육사 문학제

1. 학술대회

- 육사의 〈절정〉 ‘강철로 된 무지개’와 ‘Terrible Beauty’-도진순 / 7
- 이육사, 윤동주 비교론-김관웅 / 28

2. 문학강연

- 시를 쓰는 몇 가지 방법-공광규 / 42

3. 문학제 기행문

- 다시 연변에서-이동백 / 68
- 광야에서 절정까지-강수완 / 75

4. 시화전

- 안동 이육사문학관 회원 10편 / 83
- 중국 연변작가협회 회원 17편 / 95

5. 육사 시낭송

- 자야곡 / 115 절정 / 116 청포도 / 117 광야 / 118 꽃 / 119
연보 / 120 잃어진 고향 / 121 교목 / 122 춘수삼제 / 123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 124

학술대회

육사의 〈절정〉 ‘강철로 된 무지개’와 ‘Terrible Beauty’



도진순 교수

1959년 경북 청도 출생.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고, 현재 국립 昌原大學校 사학과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2001-2003) 초빙교수, 중국 北京大學校 역사학과(2011.3-8) 초빙교수. 일본 國際日本文化研究센터(2011.9-2012. 8) 초빙교수 역임. 현재 한중일 삼국의 전쟁 기억과 기념을 평화의 초석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와 이육사 등 근현대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대표논저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주해) 백범일지』,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 등이 있다.

이육사, 윤동주 비교론



김관웅 교수

1951년 연길 출생. 원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에서 교수, 박사 지도교사로 임직하였으며, 중국작가협회 회원, 연변작가협회 부주석을 겸임하였음. 『중국조선족문학통사』, 『력사의 강, 두만강을 말한다』, 『세계 문학의 거울에 비춰본 우리 문학』, 『김학철 문학과 의 대화』, 『한국고대소설사』등 20여권의 학술저서와 『유림외사』, 『문심조룡』, 『채근담』, 『금병매』, 『서옥설』등 20여권의 역서가 있고 2백여 편의 문학평론, 수필, 소설 등을 발표했음. 『보강교육상』, 『와룡학술상』, 『진달래문학상』, 『장백산문예상』등을 수상했음.

육사의 〈절정〉

‘강철로 된 무지개’와 ‘Terrible Beauty’

도 진 순(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머리말
 2. 오리무중의 ‘강철로 된 무지개’
 3. 육사의 아름다운 채색 무지개
 4. ‘흰 무지개’와 ‘강철로 된 무지개’
 5. ‘비극적 황홀’과 ‘Terrible Beauty’
 6. 맺음말
-

〈국문요약〉 이육사의 시 「절정」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시의 마지막 구인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이다. 본 연구는 ‘강철로 된 무지개’에 대한 그간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고,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음 몇 가지를 논증하였다.

1) ‘강철로 된 무지개’가 일반적인 채색 무지개가 아니라, 형가(荊軻)가 진시황(秦始皇)을 암살하려 할 당시 나타났다는 ‘백홍관일(白虹貫日)’의 ‘흰 무지개’에서 비롯되었다. 2) 이러한 ‘흰 무지개’는 전통사회에서 반역과 불길의 징조였지만, 일제 식민지하 독립운동에서는 윤봉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열(義烈)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3) 1918년 일본에서 유명한 ‘백홍(白虹)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육사는 ‘흰 무지개’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강철로 된 무지개’로 표현하였다.

그간 학계의 주류적 견해는 ‘강철로 된 무지개’를 예이츠(W. B. Yeats)의 비극적 환의(tragic joy)에서 차용한 비극적 황홀(tragic ecstasy)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과 수난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의열투쟁(patriotic armed struggle)을 적극 지지하던 육사와 「절정」의 시세계와는 맞지 않다. 그것은 예이츠가 「1916년 부활절(Easter 1916)」에서 제국의 끔직한 탄압에 의해 오히려 독립의지가 강화되는 ‘끔직한 아름다운(terrible beauty)’과 비견될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강철/무지개, 형가(荊軻), 이수가(易水歌), 흰 무지개(白虹), 비극적 황홀, 끔직한 아름다움.

1. 머리말

絶頂
매운 季節의 채썬에 갈겨 마춤내 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딜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¹⁾

1940년 1월 『문장』에 발표된 〈절정〉은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구조이다. “내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처럼 기(起)는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시작해야 시적 전개에 용이한데, 놀랍게도 〈절정〉은 아주 강하게 ‘매운 계절의 채썬(채찍)에 갈겨’로 시작한다. 물론 ‘매운 계절의 채찍’은 시인이 살고 있는 일제 전시 파시즘의 엄혹함을 표현한 것이요, 그 채찍에 갈겨 시적 화자는 추운 북방으로 쫓겨 간다. 겨울의 북방이라, 엄혹함을 의미하는 추위는 시공간으로 중첩된다.

승(承)에서는 1연에 이어 수평적으로 더 쫓길 수 없는 한계에서 다시 수직적으로 내몰려 고원의 ‘서리빨 칼날진 그 우[위]에 서’게 되는 극한 상황을 묘사한다. 이 시를 구상된 시상지(詩想地)가 시인의 고향에 있는 왕모산의 칼선대라는 뾰족한 바위 끝이라는 주장도 있거니와,²⁾ 시적 화자는 북방 고원의 어느 칼날 진 한 극점으로 몰린다.

2연까지 쫓기는 피동(被動)의 입장에 있던 시적 화자의 시선은 3연 전(轉)에서 전환하여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자문해 보지만, ‘한발 재겨 디딜곳조차 없다’는 상황을 목도한다.

1) 1940년 1월 『문장』에 발표된 원본에 의거(박현수 편, 박현수 편, 『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 예옥, 2008, 111면). 한편 이원조가 편한 최초의 『육사시집』(서울출판사, 1946, 25면)에는 3연 마지막의 물음표(?)와 4연 마지막의 마침표(.)가 없다.
2) 안상학, 「서릿발 칼날진 그 우에 서다」, 『영남일보』, 2008년 10월 20일.

‘대륙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자신의 호[陸史]처럼, 육사는 ‘행동이란 것이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한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그가 다시 확인한 것은 ‘숫벼룩이 뿔어얹을 만한 땅도 가지지 못한’³⁾ 극한상황뿐이었다.

그리하여 4연 결(結)에서 시적 화자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한다. 그 결론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운 季節의 채찍’이란 기구(起句)에 대응하는 결구(結句)이며, 3연 전구(轉句)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마침표(.)’로 마무리하는 단호한 답변이기도 하다. 이처럼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결구야말로 『절정』의 미학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구절이다.

육사의 시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우 이원조는 해방 후 『육사시집』을 발간하면서 쓴 발문에서 육사의 ‘초강(楚剛)하고 비타협적’인 시의 대표작으로 〈절정〉을 지목한 바 있다.⁴⁾ 이 초강(楚剛)의 의미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구절의 해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일찍이 원(元)나라의 범팽(范梈)은 시에서 무릇 결(結)은 ‘깊고 아득해야 한다(要淵永)’고 했는데,⁵⁾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는 깊고 아득하기 짝이 없어 육사의 시 중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구절이다. ‘비극적 황홀’ ‘비극적 초월’ ‘위버멘쉬(Übermensch, 超人)’ 등의 상찬이 있는가 하면, ‘단지 장식적인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의분이 들끓는 저항자의 그것’이 아니며, 심지어 ‘절망의 절정’이라는 등 부정적 평가도 있다.⁶⁾ 이 글의 목적은 〈절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구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의미를 바로 해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현재 오리무중인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오리무중의 ‘강철로 된 무지개’

1) 무지개: ‘비극적 황홀’ 또는 ‘비극적 초월’

‘강철로 된 무지개’에 대해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주류적 견해는 김종길의 ‘비극적 황홀’이라는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시인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비극적 환희(tragic joy)’를 차용하여 ‘비극적 황홀’이란 개념으로 「절정」의 ‘강철로 된 무지개’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3) 김용직·손병희 편, 『이육사 전집』, 깊은샘, 162면.
4) 이원조 편, 『육사시집』, 서울출판사, 69면.
5) 구본현, 「漢詩 絶句의 기승전결 구성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30호.
6) 홍기삼, 「혁명의지와 시의 복합」, 『문학사상』 1976년 1월호, 213면; 김용직·손병희 편, 앞의 책, 397; 마광수, 「이육사의 시 「절정」의 또 다른 해석」, 『현대문학의 연구』, Vol.16, 2001, 46면.

「절정은 하나의 한계 상황을 상징하지만, 거기서도 그는 한 발자국의 후퇴나 양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운 계절’인 겨울, 즉 그 상황 자체에서 황홀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그 황홀은 단순한 도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철과 같은 차가운 비정(非情)과 날카로운 결의를 내포한 황홀이다.⁷⁾

김종길의 ‘비극적 황홀’은 강철과 같은 냉정함에 무지개라는 황홀한 이미지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김재홍은 이러한 ‘비극적 황홀’을 이어받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여 초인이 되는 니체의 ‘위버멘쉬(Übermensch 超人)’라는 개념을 사용, ‘강철로 된 무지개’를 ‘비극적 자기 초월’의 아름다움으로 묘사하였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라는 이 시의 결구는 무수한 상황과의 부딪침 끝에 자기 극복의 치열한 몸부림의 절정에 도달하여 운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성취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비극적 자기 초월의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 구절은 오랜 방황과 갈등 끝에 마침내 자아 발견을 성취하고 다시금 묵묵히 삶의 본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위버멘쉬의 모습을 형상한 것일 수도 있다. 아울러 ‘겨울’이 표상하는 현실 인식이 ‘강철’이라는 광물적 이미지리의 대결 정신과 결합하고, 이것이 다시 ‘무지개’가 상징하는 예술 의식으로 탁월한 상승을 성취한 모습일는지도 모른다. 그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이 구절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운명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⁸⁾

김종길의 ‘비극적 황홀’이나 김재홍의 ‘비극적 자기 초월’에서 강철이나 무지개는 다 긍정적 의미이다. 강철은 쉽게 사라지는 무지개의 약점을 보완하는 단련과 굳건함을, 무지개는 현실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상징한다. 이러한 해석이 ‘강철로 된 무지개’의 주류적 해석이 되어, ‘강철같이 굳은 의지와 무지개 같은 꿈’, ‘강철과 같이 견고한 봄으로 가는 무지개 다리’, ‘금세 사라지지 않는 무지개’ 등으로 이어졌다.⁹⁾

한편 오세영은 이들과 달리, 강철이 겨울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라고 주장하였다.

강철이 구속, 죽음, 압박, 도구적, 물리적 삶을 표상함에 비해, 무지개는 자유, 생성, 해방, 정신적, 실존적 삶을 표상하는 이미지임을 드러내 보여 준다. 이러한 모순의 관계는 분명히 시적 역설을 형상화해내고 있다.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는 이렇게 이 시의 전체적 역설구조인 삶의 비극적 초월 혹은 의식공간의 축소(강철)과 확대(무지개)라는 기본 공식을 단 한 귀절로 함축 제시하고 있다.¹⁰⁾

즉 ‘강철로 된 무지개’는 부정적인 강철에서 긍정적인 무지개로 나아가는 ‘비극적 초월’(tragic transcendence)이라는 것이다. 류순태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¹¹⁾

지금까지도 김종길의 ‘비극적 황홀’ 류의 개념이 ‘강철로 된 무지개’에 대한 주류적 해석으로 자리하고 있다. 위의 주장 중에는 강철에 대한 정반대의 해석도 있지만, 아름답고 황홀한 채색 무지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강철로 된 무지개’가 황홀한 채색 무지개가 아니라면 이러한 견해의 근거는 한 순간에 무너진다. 이 점은 뒤에 다시 논한다.

2) 강철: 부정 또는 절망

장도준은 ‘강철로 된 무지개’에서 ‘강철’과 ‘무지개’를 이질적이며 대립적인 이미지로 보는 것에 반대하고, 나아가 핵심어는 ‘무지개’가 아니라 ‘강철’이라 주장한다.

‘강철로 된 무지개’는 곧 겨울이며, 그러므로 진실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닌 강철로 된 무지개, 즉 무지개로 위장된 강철인 부정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다.¹²⁾

장도준의 ‘무지개로 위장된 강철인 부정의 세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광수는 〈절정〉이 ‘절망의 절정’을 노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시인(또는 우리 민족)이 처하고 있는 고난의 상징으로서의 무지개는 비가 온 다음에 하늘에 아름답게 걸려 있는 보통의 그런 무지개가 아니라 “강철로 된 무지개”인 것이다. 강철로 무지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빨주노초파남보’로 페인트칠을 해 놓은 무지개—그런 무지개가 사라질 리 없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고난(겨울)은 영원하다’는 의미가 되고, 따라서 ‘절정’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것은 ‘절망의 절정’이 된다.¹³⁾

한편, 박민영은 〈절정〉이 절망을 노래하였다는 점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이어받고 있지만, ‘강철로 된 무지개’는 일반적인 ‘오색무지개’와 대비되는 ‘무채색 무지개’ 즉 ‘흰 무지개’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그는 “무지개는 아름다우나, 태양과 흰 무지개의 만남은

7) 김종길, 『육사의 시』, 『나라사랑』 16집, 1974년 가을호, 78면.

8) 김재홍, 『육사 이원록』,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275면.

9) 정한모, 『육사시의 특질과 시사적 의의』, 『현대시론』, 보성문화사, 1988, 287면; 오하근, 「시작품 해석의 오류 연구: 이육사 「절정」의 경우」, 『한국언어문학』 40, 1998, 478면; 한명희, 「절망의 절정에서 생각하는 지지 않는 무지개」, 『시의 아포리아를 넘어서』, 이룸, 2001, 209면.

10) 오세영, 『육사의 「절정」: 비극적 초월과 세계인식』, 『한국 현대시 작품론』, 문장, 271~272면.

11) 류순태, 「이육사 시 「절정」의 비극적 실존 의식과 저항성 연구」, 『우리문학연구』 38, 우리문화회, 2013.

12) 장도준, 「최종적 행위와 세계 인식」, 『연세어문학』 18,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85, 179면.

13) 마광수, 「이육사의 시 「절정」의 또 다른 해석」, 『현대문학의 연구』 16, 한국문화연구학회, 2001, 46면

비정상적인 것, 위험한 것을 상징한다”는 『한국문화상징사전』의 구절 등을 구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색무지개가 희망이라면, 흰 무지개는 절망이다. 이육사의 ‘강철로 된 무지개’ 역시 강철의 색처럼 무채색일 것이며, 따라서 희망이 아닌 절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무지개는 강철로만 들어졌으므로, 어느 무지개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도 않는다.¹⁴⁾

그의 주장은 ‘강철로 된 무지개’=‘무채색 무지개’=‘흰 무지개’=‘절망의 영속’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절정〉을 ‘절망과 탄식의 시’로 규정한다.

이 시는 비극적 현실을 초극하려는 강렬한 의지의 시가 절대 아니다. 이 시 어디에도 비극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 태도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시인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다. (….) 그 역시 두려웠을 것이다. (….) 시인으로서 이육사는 적어도 이 시 안에서만큼은, 당시 많은 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했듯, 그 겨울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음이 분명하다.¹⁵⁾

위 세 사람의 주장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채색 무지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것이 ‘부정의 세계’나 ‘절망’을 의미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비약이며, 근거가 불충분하다. 특히 박민영은 ‘흰 무지개’가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데도, 사전적인 의미에 구애되어 「절정」을 ‘절망과 탄식의 시’로 확신하였다. 이는 큰 실수이다. 이렇게 하면 ‘매운季節의 채찍’으로 시작한 시가 직선적 연장에서 끝나게 되어 시상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다. 요컨대 ‘강철로 된 무지개’ 또는 ‘흰 무지개’는 부정이나 절망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것 역시 다음에 다시 논한다.

3) 무지개가 아니다

위의 두 주장은 모두 어떤 무지개를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시킨 것이다. 그런데 ‘강철로 된 무지개’는 무지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먼저 정한숙은 자신의 고향 사투리까지 거론하면서 ‘강철로 된 무지개’는 ‘씻덩어리로 만든 물지게’이며, 그것은 짊어지고 다니기 어려운 고통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¹⁶⁾ 이런 해석은 정한숙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매우 산문적이며, ‘매운季節의 채찍’이란 기구(起句)에 맞서는 결구(結句)로서 어울리지 않아 길게 논의할 것이 없다.

14) 박민영, 「고원에 뜬 흰 무지개: 이육사의 「절정」, 『시안』 2009년 겨울호, 165~166면.

15) 박민영, 위의 글, 166~167면.

한편 오탁번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햇빛에 반짝이는 눈꽃(雪花) 또는 빙설(氷雪)에서 비롯되어 ‘낮이나 작두날에서 보던 무지개빛’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시의 화자는 엄동설한에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는 북방의 어느 고원에 처해 있다. 그의 앞에는 매운바람과 햇빛에 반짝이는 무수한 설화(雪花)가 펼쳐져 있다. 그의 앞에는 매운바람과 어울려 지금 빙설(氷雪)이 언뜻언뜻 무지개빛으로 비쳐난다. 여기에 곁들여 낮이나 작두날에서 보던 무지개빛이 생각난다.¹⁷⁾

육사의 고향인 원촌(遠村) 왕모산에는 칼선대[葛仙臺]라는 거대한 칼 모양의 바위가 낙동강가에서 수직으로 솟아올라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서 있는데, 이곳이 바로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서다’의 시적 현장이라는 주장도 있다.¹⁸⁾ 이 칼선대나 왕모산에 오르면 낙동강이 잘 보이고, 겨울철 강 위의 빙설이나 산의 설화(雪花)가 햇빛에 반짝일 수 있고, 그것이 낮이나 작두날에 햇빛이 서려 나는 무지개빛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설령 그것으로부터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가 시작되었다 해도,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하다.

다음, 권영민은 ‘강철로 된 무지개’에서 ‘강철’은 ‘鋼鐵’이 아니며, ‘무지개’도 무지개가 아니라 는 일견 흥미로운 해석을 전개하였다.

‘강철’은 독룡(毒龍)을 의미한다.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한 큰 뱀을 강철이라고 일컫는다. ‘강철이 지나간 데에 봄가을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농사철에 알맞게 비가 내리지 않고 한발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흔히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한 큰 뱀 강철이가 심술을 부려서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철이 간 데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봄가을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황폐해진다. (….) ‘무지개’와 유사한 말 가운데 ‘무지기’라는 말이 있다. ‘무지기’는 대사(大蛇), 즉 큰 뱀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은 이 단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내 고향인 충청도에서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다. 구한 말에 게일(H. Gale)이 펴낸 우리말 사전에도 분명히 ‘무지기(무직이)’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고, 그 뜻이 큰 뱀으로 풀이되어 있다. 이 단어와 유의적인 관계를 이루는 ‘이무기’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시에서 ‘무지개’를 ‘무지기’의 오식으로 보고자 한다.¹⁹⁾

16) 권영민, 「이육사의 〈절정〉과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의미」,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1999, 9-1호, 135~136면.

17) 오탁번, 『韓國現代詩史의 對位的 構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8, 215면.

18) 안상학, 앞의 글.

19) 권영민, 앞의 글, 141~142면.

권영민의 특이한 주장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다. ① 육사가 다른 시에서도 ‘무지개’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들은 큰 뱀이나 이무기로 바꾸면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유독 〈절정〉의 무지개만이 ‘무지기’, 즉 큰 뱀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② ‘강철’도 마찬가지이다. 독룡을 의미하는 ‘강철’이라면 일반적인 강철(鋼鐵)과 구분하여 한문으로 ‘強鐵’, 한글로 ‘강철이’ ‘깡철이’ 등으로 표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③ 독룡을 의미하는 ‘강철’이나, 큰 뱀을 의미하는 ‘무지기’는 사실상 비슷한 의미로, 모두 이무기를 의미할 수 있다. 권영민도 위 인용구에서 ‘큰 뱀 강철이’라고 하고, 또 ‘무지기는 대사(大蛇), 즉 큰 뱀’이라 하였다. ‘강철’과 ‘무지기’는 같은 것이어서 둘 사이에는 변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④ ‘강철이 지나간 데에 봄가을이 없다’는 말은 원래 ‘강철이 간 데는 가을도 봄’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가을 수확철에 강철이가 나타나 아무런 초목도 자라지 않았던 초봄의 상황으로 돌아가 1년 농사가 헛되게 되었다는 말이다. 즉 수확철에 강철이 나타나서 농사를 망쳤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절정〉은 수확철인 가을과 전혀 관계없는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중의 겨울에 대한 시이다.

3. 육사의 아름다운 채색 무지개

‘강철로 된 무지개’를 검토하기 전에 육사가 시에서 언급한 다른 무지개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江 건너간 노래」(『批判』 1938. 7)인데, 이 시는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밤/ 앞 내스강(江)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로 시작한다. 시의 시간적 배경이 「절정」과 같이 한겨울이다. 이 시의 마지막 연 ‘밤은 옛스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에서 무지개가 등장한다. 여기서 무지개는 ‘곱게’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다운 채색 무지개를 말한다.

다음, 「아편」(『批判』 1938. 11)은 ‘나릿한 남만(南蠻)의 밤’으로 시작되는 봄밤의 노래이다. 마지막 연 “무지개같이 황홀(恍惚)한 삶의 광영(光榮)/ 죄(罪)와 곁드려도 삶직한 누리”에 등장하는 무지개도 채색의 황홀한 이미지이다.

세 번째는 「독백」(『人文評論』 1941. 1)으로 「절정」 이후의 작품이다. 항구의 달밤을 노래한 이 시의 3연, “선창(船窓)마다 푸른막 치고/ 초스불 향수(鄉愁)에 찌르르 타면/ 운하(運河)는 밤마다 무지개 지네”에 등장하는 무지개도 역시 채색의 아름다운 이미지이다.

마지막으로 〈파초(芭蕉)〉(『春秋』 1941. 12)는 가을밤을 읊은 것인데, 무지개는 마지막 연에, “그리고 새벽하늘 어데 무지개 서면/ 무지개 밟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세”로 등장한다. 여기서 무지개는 일출 전 무지개 모양의 오색구름을 의미하는데, 지상과 하늘이 만나고 헤어지는 연결다리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 네 가지 무지개 중에서 육사가 낮의 채색 무지개를 직접 노래한 것은 없지만, 모두 우

리가 아는 채색 무지개의 아름답고 황홀한 이미지를 상정한 것이다. 무지개의 이러한 이미지는 아직도 일반적이며, 그것은 전통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통사회에서 오색영롱한 채색 무지개는 봄~가을의 생명 현상과 함께 하는 것으로 믿었다. 무지개를 의미하는 한자인 홍(虹)을 비롯하여 예(蜃) 체(蝶) 동(蝶) 등은 모두 ‘벌레 충(虫)’ 변이다. 이것은 ‘벌레의 입김’에서 무지개가 비롯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 벌레(虫)들의 입김이 아름답게 고루 안배되어 이 지러진 데가 없이 원만해서 마치 예술가(工人)가 만들어 놓은 것 같으므로 홍(虹)이 된다는 것이다.²⁰⁾

그런데 벌레들이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름다운 채색 무지개가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월령(月令)』에서 관련 구절들을 보면, 음력 1월(孟春之月)에는 하늘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고(天氣下降),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며(地氣上騰), 하늘과 땅이 화동하여(天地和同), 초목의 싹이 튼다(草木萌動). 음력 2월(仲春之月)이 되면, 칩북하던 벌레들이 다 생동하여(蟄蟲咸動), 구멍을 뚫고 밖으로 나온다(啓戶始出). 이리하여 음력 3월(季春之月)이 되면, 무지개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虹始見).²¹⁾

이렇게 늦봄에 나타난 무지개는 벌레소리 울창한 여름철에 가장 왕성하다가 초겨울이 되면 사라진다. 즉 음력 10월(孟冬之月)이 되면, 물이 처음으로 얼고(水始冰), 땅이 얼며(地始凍), 무지개는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다(虹藏不見). 이달에는 하늘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天氣上騰), 땅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서(地氣下降),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통하지 않고(天地不通), 서로 막혀서 겨울이 된다(閉塞而成冬).

요컨대, 동양 전통에서 채색 무지개는 늦봄인 음력 3월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여(虹始見), 초겨울인 음력 10월에는 사라진다(虹藏不見)는 것이다. 겨울에도 봄과 같이 따뜻한 날 무지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다.

4. ‘흰 무지개’와 ‘강철로 된 무지개’

1) ‘흰 무지개’와 검(劍)

일제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 선 육사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한 것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것이다. 이 겨울 무지개는 벌레들의 입김에서 비롯되는 아름다운 채색 무지개는 분명 아니다. 육사는 이와 전혀 다른 무지개를 생각했다. 이 특이한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는 2,000여 년 전 한 비장한 사나이에게서 비롯된다. 그는 진시황 암살에 나선 형가(荊軻)이다.

20)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7권, 「禮記臆一」.

21) 『月令』: <http://baike.baidu.com/view/902742.htm>

중국 전국시대 연(燕)나라의 태자(太子) 단(丹)은 진(秦)나라 인질에서 도망쳐와 복수를 도모하는데, 진시황을 암살할 자객으로 형가를 선택하게 된다. B.C. 227년, 드디어 형가는 진나라로 가게 되는데, 국경 가까이 있는 이수(易水)에서 이별의 노래를 부른다. 『사기』의 「자객열전(刺客列傳)」과 『전국책(燕策三)』이 전하는 이수의 이별 장면은 눈에 잡힐 듯 생생하며 장엄하기 그지없다.

태자를 비롯해 암살 음모를 아는 이들은 형가의 장례를 미리 치르는 듯 모두 흰옷을 입고 흰 관을 쓰고 이수 강가까지 와서 형가를 배웅한다. 이수 강변에서 이별의 의식이 행해지는데, 형가의 친구 고점리(高漸離)가 현악기의 일종인 축(筑)을 타는 가운데, 형가가 노래를 두 번 부른다. 먼저 비장한 변치성(變徵聲)으로²²⁾ 노래하니 듣는 사람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형가가 다시 한음 높여 강개한 우성(羽聲)으로 노래하니 “모두 두 눈을 부릅뜨고(士皆瞋目), 머리털은 관을 찌를 정도로 솟구쳐 올랐다(髮盡上指冠)”.²³⁾ 슬프고도 강개한 이별의 의식을 짧게 치르고 난 뒤 형가가 마차를 타고 홀연히 떠나고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수의 이별 현장에서 형가가 두 번 부른 노래를 후에 〈이수가(易水歌)〉라 하는데, 15자의 짧은 2구이지만 꾸밈이 없고 비장하기 그지없다.

風蕭蕭兮易水寒 바람은 쓸쓸하고 이수 강물은 차구나

壯士一去兮不復還 장사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리

그런데 『사기』 「추양열전(鄒陽列傳)」에는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러 갈 당시 하늘에서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白虹貫日)’는 묘사가 있다. 이로부터 형가의 외침(노래)이 하늘로 기운이 뻗어 흰 무지개가 되어 해를 찔렀다는 고사(故事)가 되었다. 여기서 해는 진시황 같은 군주를, ‘흰 무지개’는 그를 찌르는 검(劍)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형가가 불렀다는 〈이수가〉는 위의 2구 15자에 다시 아래 2구 15자가 추가되어 유통되곤 하였다.

探虎穴兮入蛟宮 호랑이 굴을 찾음이여! 이무기(진왕)의 궁으로 들어가도다

仰天嘯氣兮成白虹 하늘을 우러러 한번 외침이여! 흰 무지개를 이루었도다

22) 중국의 음계는 고래로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 5음이었으나, 서양의 7음계가 전해지고 난 이후 5음에다가 ‘반음’에 해당하는 변치(變徵)와 변궁(變宮)이 더해 7음계를 사용하였다.

23) 형가와 〈이수가(易水歌)〉에 대한 기록은 『史記』 「刺客列傳」과 『戰國策』 「燕策三」이 완전 동일하나, 『사기』는 “發盡上指冠”으로 『戰國策』은 “髮盡上指冠”으로 한 글자의 차이가 있다.



그림1. 한(漢) 화상석(畫像石)의 형가자진왕(荊軻刺秦王): 왼쪽이 진시황, 오른쪽 머리카락이 하늘로 솟구친 사람이 형가(荊軻). 아래 상자 안은 진시황을 만나기 위해 가져간 번어기(樊於期)의 목, 옆드려 있는 이는 동행한 진무양(秦舞陽) ◎ 張道一

진시황 암살 시도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실패하고, 형가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사마천은 「자객열전」에서 형가의 뜻이 높고 의기로와 ‘그 이름이 후세에 전하여 잊을 수 없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진나라 멸망 후 등장하는 한(漢)나라에서 형가는 당연히 폭군에 맞선 의사(義士)로서 인기가 높아, 한나라의 화상석(畫像石)에도 여러 모습으로 등장한다(그림 1).²⁴⁾ 또한 형가로 해서 ‘이수송별(易水送別)’ ‘발진지관(髮盡指冠)’ ‘백홍관일(白虹貫日)’ 등 많은 고사성어가 탄생하였다.

형가에 대한 평가는 시대마다 부침이 있었지만, 폭군이 지배하는 시기나 난세에 는 의롭게 기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도연명(陶淵明)은 〈영형가(詠荊軻)〉에서 “그 사람 비록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其人雖已沒)/ 천년이 지나도 그 정한은 남아 있다(千載有餘情)” 하였고, 이백(李白)은 15세 전후에 태산(泰山)에 올라 〈의한부(擬恨賦)〉를 지어 형가의 한(恨)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荊卿入秦 直度易水 형가가 진나라에 들어가고자, 곧바로 이수를 건넜네

長虹貫日 寒風颯起 긴 무지개 해를 꿰뚫고, 스산한 바람 일어나도다.

遠離始皇 擬報太子 원수 진시황을 죽여, 태자 단의 은혜에 보답코자 하였건만

奇謀不成 憤慨而死 장한 도모 성사되지 못하고, 분통하게 죽었도다.

자고로 자객(刺客)의 비조라면 ‘형섭(荊聶)’으로 병칭되는 형가(荊軻, ?~BC 227년)와 섭정(聶政, ?~BC 397년)이다. 형가가 너무나 유명해서 이름을 앞에 두지만, 시기적으로는 섭정이 더 앞선다. 『전국책』(魏策四)에 의하면, 섭정이 한왕(韓王)을 찌를 때에도 ‘백홍관일(白虹貫日)’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聶政之刺韓傀也, 白虹貫日). ‘형섭(荊聶)’ 이후 ‘백홍관일(白虹貫日)’은 군주암살의 징조로 여겨졌다.

이 ‘백홍관일(白虹貫日)’이란 고사에서 ‘백홍’ 즉 ‘흰 무지개’는 군주인 해(日)를 찌르는 검(劍)의 기세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吳)나라 손권(孫權)의 ‘백홍검(白虹劍)’이다. 최표(崔豹)의 『고금주(古今注)』에 의하면, 손권에게는 6개의 명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1검이 바로 백홍검(白虹劍)이었다.²⁵⁾ ‘흰 무지개(白虹)’는 타원형이 아니라 칼처럼 길쭉한 모습이라고 해서 이백의 〈의한부〉에서처럼 ‘긴 무지개(長虹)’로 불리기도 한다.

2) ‘흰 무지개’, 불온의 상징?

‘흰 무지개(白虹)’는 ‘형섭(荊聶)’에서 비롯되어 국가적 변란의 상징으로 시와 문학은 물론 천문현상에 대한 기록으로도 자주 등장한다. 물론 대부분 불온한 흉조의 상징이다.

동탁(董卓)에 의해 한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노래한 조조(曹操)의 〈해로행(薤露行)〉에도 ‘흰 무지개, 해를 꿰뚫었으니(白虹爲貫日)’라는 구절이 나온다. 당시 역사문헌에는 190년 정월 동탁(董卓)이 한(漢)의 홍농왕(弘農王) 유변(劉辯)을 죽이고, 2월에는 낙양에서 장안(長安)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때 하늘에는 ‘백홍관일(白虹貫日)’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한다(『후한서(獻帝紀)』).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사기』에서부터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백홍(白虹)이 여러 번 등장한다. 예컨대 『삼국사기』에는 551년 정월 백홍관일(白虹貫日) 현상이 있었는데, 그해 10월 백제의 성왕이 중국 양(梁)나라에서 ‘후경(侯景)의 난’이 일어났음을 알지 못하고 조공하였다가 사신들이 낭패를 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²⁶⁾ 『조선왕조실록』에는 ‘백홍(白虹)’이 409건이나 검색되는데,²⁷⁾ 역시 대부분 불길한 징조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1616년(光海 8年) 윤선도의 상소문을 보자.

태양은 모든 양(陽)의 종주(宗主)로서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춘추(春秋)』에는 공(公)들이 일식(日食)이나 하늘 운행의 상도(常度)를 반드시 기록하였습니다. 또 주자가 주석을 단 『시경집전(詩經集傳)』에는 [일식이] ‘첩부(妾婦)가 그 지아비를 누르거나, 신하가 정권(政權)을 농단하거나, 오랑캐가 중국을 침범하는 형상이니, 모두가 음(陰)이 왕성하고 양(陽)이 미약한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白虹貫日) 참혹함은 일식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재변은 까닭 없이 생기지 않는 것이니, 어찌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²⁸⁾

‘흰 무지개’는 이처럼 변란이나 역모를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가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문화상징사전』에는 “무지개는 아름다우나, 태양과 흰 무지개의 만남은 비정상적인 것 위험한 것을 상징한다”고²⁹⁾ 설명하게 된 것이다.

태평한 시기에는 백홍(白虹)이 불길한 징조지만, 폭군 치하의 난세에는 희망과 변화의 상징이다. 결국 백홍(白虹)을 어떻게 보는가가 그 시대를 보는 척도가 된다. 독립운동의 최대 목표는 식민권력을 무너뜨리고 조국의 독립 해방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식민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흰 무지개’나 그 원조인 형가(荊軻)는 의열(義烈) 투쟁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윤봉길 의사이다.

윤 의사는 1930년 3월 6일 23세의 젊은 나이로, 둘째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독립투쟁의 꿈을 안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망명길에 오르면서 그가 남긴 유묵은 ‘장부가 집을 나서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丈夫出家生不還)’였다. 이 구절이 다름 아닌 형가의 〈이수가〉 중에서 ‘장사(壯士)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리(壯士一去兮不復還)’에서 비롯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화답하듯, 미주지역 독립운동신문인 『신한민보』의 주필 홍언(洪焉)은 윤봉길의 의거를 ‘이수의 비가는 지기의 노래(易水悲歌知己音)’라는 구절로 찬양하였다.³⁰⁾ 홍언은 윤봉길의사가 〈이수가〉를 부른 형가의 심정으로 의거를 단행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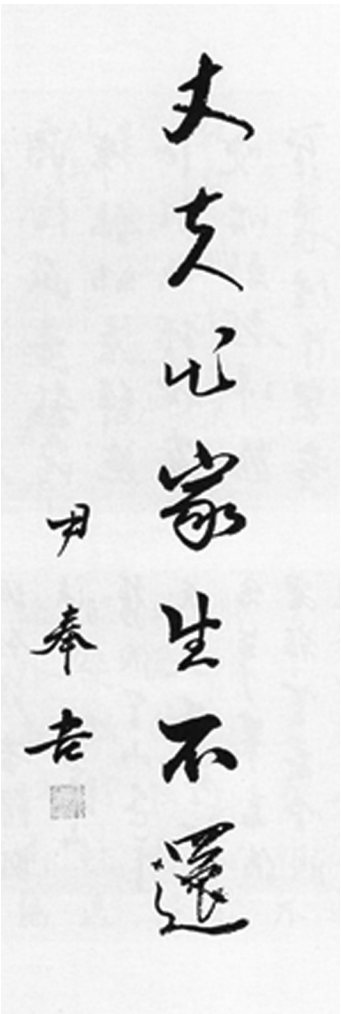


그림2. 윤봉길 유묵, 丈夫出家生不還

24) 張道一, 『漢書故事』 中國: 重庆大学出版社, 2006, 86~88면.
25) “三國吳大帝孫權有六柄寶劍, 一曰白虹, 二曰紫電, 三曰辟邪, 四曰流星, 五曰青冥, 六曰百里”
26) 『삼국사기』 卷26, 『百濟本紀』 4, 성왕(聖王) 二十七年春一月 ‘흰 무지개가 해를 가로 지른다’; 성왕(聖王) 二十七年冬十月 ‘양에 사절을 파견하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sg_026r
27)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ntro/intro_info.jsp
28) 日者, 衆陽之宗, 而人君之表, 故日食乃天行之常度, 而春秋每公必書。傳曰: “或妾婦乘其夫, 或政權在臣下, 或夷狄侵中國, 皆陰盛陽微之證也。” 況白虹貫日之慘, 不可比諸日食。變不虛生, 豈無所由然?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의 번역이 어색하여 수정하였다.
29)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278면.
30) 이 구절은 洪焉의 〈尹奉吉義士 虹口炸擊 十首〉 중에서 마지막 10首의 2행이다. 이 시는 홍언의 東海詩抄 (독립기념관 소장, 1932)에 수록된 것으로 매헌윤봉길전집 6권(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2012, 41-42면, 786-788면)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형가’ ‘이수가’ ‘흰 무지개’ 등은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항일 의열투쟁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일제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 서서 육사가 눈을 감고 곱곰이 생각한 ‘강철로 된 무지개’는 바로 이러한 무지개, 즉 검의 기세로 해를 찌르는 ‘흰 무지개’였다. 여기서 해(日)는 물론 일제(日帝)이다.

3) ‘백홍(白虹)사건’과 ‘강철로 된 무지개’

육사는 왜 ‘흰 무지개(白虹)’라는 유명한 상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럴만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

1918년 일본에서 유명한 ‘쌀 소동(米騒動)’과 더불어 이른바 ‘흰 무지개 사건(白虹事件)’이 일어났다. 당시 ‘다이쇼(大正)데모크라시’의 선두에 서 있던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은 1918년 8월 26일 자 보도로, 데라우치(寺内正毅) 내각의 시베리아 출병과 쌀값 폭등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완전무결을 과시하던 우리의 대일본제국은 이제 두려운 최후의 심판일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옛 사람들이 백홍관일(白虹貫日)라고 하던 불길한 징조가 소리 없이 사람들의 머리에 뇌성과 같이 울린다.

여기서 문제가 된 구절이 바로 내란을 암시하는 ‘백홍관일(白虹貫日)’이었다. 신문사의 편집간부가 이 구절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인쇄 중단을 지시하였지만, 이미 1만부 가량이 배포되고 난 후였다. 검찰 당국은 신문 발행을 금지시켰으며, 우익단체 흑룡회(黑龍會) 회원들은 무라야마(村山龍平) 사장을 습격하여 옷을 벗겨 전라(全裸)로 전신주에 동여매고 머리에 ‘國賊村山龍平’라고 써 붙이는 대소동을 일으켰다. 데라우치 내각은 쌀 소동에 책임을 지고 9월 21일 총사직하였고, 비교적 자유스럽던 다이쇼데모크라시는 이로써 끝이 났다.

육사는 간토대지진(關東大地震)과 조선인 학살 사건 직후인 1924년 일본 도쿄로 건너가 근 1년간 유학한 적이 있다.³¹⁾ 또한 국내에서는 『중외일보』 기자생활을 하였다. 즉 전시 파시즘의 시기 내란을 의미하는 ‘흰 무지개’라는 표현은 ‘목 놓아’ 부를 수 없는 금지어라는 것을 육사는 잘 알고 있었다. 육사의 시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석초는 〈절정〉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겨울은 그것이 바로 일정(日政)의 서슬선 총칼 밑에 떨고 있는 우리 어두운 현실상황의 비유이었을 것이다. 그가 시 제작에 있어서 상징적 수법을 쓴 것은 반드시 그의 본령은 아니었다. 그가 즐겨 은유의 상징을 사용한 것은 당시의 가혹한 관헌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실은 그의 작품들의 밑바닥에는 예리한 현실감각과 강한 의지가 숨어 있는 것들이다.³²⁾

육사는 당시의 가혹한 검열 때문에 ‘흰 무지개’를 ‘강철로 된 무지개’라 표현하였던 것이다. 생철(生鐵)을 제련하면 강철(鋼鐵)이 되고, 강철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검(劍)을 만드니, 강철은 검(劍)이 되며, 검의 칼날에 비치는 ‘서리 빛’ 기운을 ‘흰 무지개’라 표현한 것이다.

육사는 일제 치하에서 불온과 불길을 상징하는 검(劍)의 흰 무지개를 환호하면서 은밀하게 표현하였다. 〈절정〉과 같은 해(『三千里』 1940. 10)에 발표한 〈서풍(西風)〉을 보자. 형가의 〈이수가〉가 스산한 강바람에서 시작하듯, 이 시도 ‘서리 빛을 함복 띠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스산한 서풍으로 시작한다.

서리 빛을 함복 띠고/ 하늘 끝없이 푸른 데서 왔다. // 江바닥에 깔여 있다가/ 갈대꽃 하얀우를 스쳐서.// 壯士의 큰 칼집에 숨여서는/ 귀향가는 손의 돌대도 불어주고.// 젊은 과부의 뺨도 히든날/ 대밭에 벌레소릴 갓구어놋코// 悔恨을 사시나무 잎처럼 흔드는/ 네오면 不吉할것같이 종와라.³³⁾

이 시의 중심 색상은 ‘서리 빛’ ‘갈대꽃 하얀 우’ ‘과부의 젊은 과부의 뺨도 히든 날’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연 ‘흰색’이다. 그리고 이 서리 빛 흰색을 품은 서풍은 형가(荊軻)와 같은 장사의 칼집에 스며들어 검과 결합하여, 드디어 ‘회한(悔恨)’의 정한을 ‘사시나무 잎처럼 흔드는’ ‘불길(不吉)’의 상징이 된다. 이것은 육사가 사모한 ‘백홍관일’, 즉 ‘강철로 된 무지개’의 또 다른 표현이다.

5. ‘비극적 황홀’과 ‘Terrible Beauty’

지금까지도 ‘강철로 된 무지개’에 대한 주류적 견해는 김종길의 예이츠의 ‘비극적 환희’를 차용한 ‘비극적 황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극적 환희’가 예이츠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인 것은 분명하다.³⁴⁾ 김종길은 그것을 죽음의 비극 앞에서도 초연한 경우로 해석하여, 1910년 한일병합에 자결하는 매천 황현, 1944년 북경감옥에서 순국하는 육사, 1945년 후쿠오카 감옥에서 순국하는 윤동주 등의 시세계를 ‘비극적 황홀’로 설명하면서, 〈절정〉의 ‘강철로 된 무지개’가 그러한 ‘비극적 황홀’로 해석하였다.³⁵⁾

그러나 ‘강철로 된 무지개’는 비극이나 죽음을 초연한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비극적 환희’나

31) 김희곤, 『이육사 평전』, 푸른역사, 2010, 78~82면). 이 책에서 육사가 일본 도쿄 유학 이후 간토대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서술한 것은 착오이다

32) 신석초, 「이육사의 생애와 시」, 『사상계』 1964년 7월호, 249면.

33) 박현수 편, 앞의 책, 132면.

34) 임도현, 「예이츠의 비극적 환희와 영웅주의」, 『현대영미드라마』 23, 2010.

35) 김종길, 「한국시에 있어서의 비극적 황홀」, 『심상』 1973년 11월호.

‘비극적 황홀’과는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제의 ‘겨울’과 ‘매운 계절의 채찍’에 맞서는 장렬한 투쟁 선언이다. 형가가 〈이수가〉를 부를 때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을 부릅뜨고, 머리카락이 솟구치’는 강개한 아름다움을 느낀 것이나, 아우 이원조가 〈절정〉을 육사의 ‘초강(楚剛)’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지목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처럼 〈절정〉이 ‘비극적 환희’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이츠의 시세계와 연결시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 식민 치하 조선의 지식인들은 영국 식민지인 아일랜드에 대해 동병상련의 친근감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에 대한 관심도 일찍부터 있었다. 김억은 1918년부터 예이츠의 시 〈하늘의 융단〉(He wishes for the Cloths of Heaven)을 번역 소개하였고, 김소월의 대표작 〈진달래꽃〉에서 “가시는 걸 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가 바로 〈하늘의 융단〉의 마지막 구절과 유사하다는 것은 널리 지적되어 온 바이다.³⁶⁾ 1924년 예이츠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예이츠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육사도 〈계절의 표정〉에서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낙엽〉 시도 읽으면 어딘가 전설의 도취와 청춘의 범람(汎濫)과 영원애의 사모에서 출발한 이 시인의 심각해 가는 심경을 볼 수 있어 좋”다고 밝힌 바 있다.³⁷⁾

〈절정〉의 최후, 최고의 문제는 마지막 구절에서 ‘겨울’과 ‘강철로 된 무지개’ 사이의 관계 지움이다. 여기서 ‘겨울’은 일제의 엄혹한 탄압을 상징하며, ‘강철로 된 무지개’는 이에 대한 강개한 무력 투쟁으로 서로 적대적 대치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는 둘 사이를 ‘-는’을 사용하여 등치관계로 표현하였다. 즉 ‘겨울에도 강철로 된 무지개가 뜬다’는 식이 아니라, ‘겨울’이 곧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적 모순어법(oxymoron)이다. 바로 이 결구의 모순어법이 예이츠의 시 〈1916년 부활절〉에 나오는 유명한 모순어법인 ‘terrible beauty’에³⁸⁾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4월 24일 월요일, 아일랜드의 부활절은 온통 핏빛이었다. 더블린의 중심가 중앙우체국에서 무장한 일단의 아일랜드인들이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영국은 즉각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진압에 나섰다. 치열한 시가전 후 봉기군의 총사령관 피어스(P. Pearse)가 4월 29일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봉기는 막을 내렸다. 아일랜드 시민과 봉기군 300명 이상이 사살되었고, 1,800여 명이 체포되었다. 무모한 봉기는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다.³⁹⁾

그러나, 영국군의 과도한 폭력 진압으로 이 봉기는 아일랜드 민족운동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36) 김용권, 『예이츠 시 번(오)역 100년: “He wishes for the Cloths of Heaven”을 중심으로』, The Yeats Journal of Korea(한국 예이츠 저널), Vol. 40, 2013.

37) 김용직·손병희 편, 앞의 책, 193면.

38) ‘terrible beauty’에서 ‘terrible’은 함의가 많아 ‘무서운’ ‘엄청난’ ‘끔찍한’ ‘섬뜩한’ ‘오싹한’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되었다. 영국군이 봉기 지도자 15인을 군사재판에 넘겨 총살하였는데, 가혹한 처형은 아일랜드 민중을 격분시키고 그들에게 민족적 자각을 불어넣었다. 대중들은 그간 극단주의자라고 지지하지 않던 봉기 지도자들을 순국영웅으로 받들게 되었고, 봉기에 동정적이지 않던 여론도 이 사건 이후 독립을 지지하게 되었다.⁴⁰⁾ 그리하여 아일랜드는 1921년 런던조약을 통해 비록 불완전하나마 영국으로부터 자치를 얻게 되었다.

봉기 지도자의 처형 후 예이츠는 3개월에 걸쳐 시 〈1916년 부활절〉을 창작하여 그해 9월 발표하였다. 시는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단락은 영국의 오랜 지배에 익숙해져 버린 예측된 평화의 일상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클럽 벽난로가에서/ 동료를 즐겁게 할 / 농담이나 조롱거리를 생각하였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비약한다.

결국 그들이나 나나
어릿광대 짓이나 하고 살 수밖에 없던 것이 틀림없었으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변했어, 완전히 변했어.
무서운 아름다움이 태어났네.
Being certain that they and I
But lived where motley is worn:
All changed, changed utterly:
A terrible beauty is born. ⁴¹⁾

어릿광대처럼 살던 봉기 관련자들이 총살당하는 혹심한 탄압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무서운 아름다움(terrible beauty)이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무서운(terrible) 피의 희생으로 민족의식과 독립의지가 부활하는 아름다움(beauty)을 역설적 모순어법으로 축약한 것이다. 시의 네 단락 중에서 세 단락이 후렴처럼 ‘무서운 아름다움이 태어나는 것(A terrible beauty is born)’으로 귀결된다.

예이츠는 〈그레고리 여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1916년 부활절에 대한 시를 쓸 것이라면서, 이미 ‘무서운 아름다움이 태어났습니다(A terrible beauty is born)’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⁴²⁾

39) 최재희, 「1916년 부활절 봉기, 아일랜드 민족운동의 전환점」, 『역사비평』 67, 240면.

40) 김재봉, 「집단추모의 한 양식: 예이츠의 「1916년 부활절」」, The Yeats Journal of Korea(한국 예이츠 저널), Vol.33, 2010, 50면.

41) 한글 번역에는 이창배, 『W. B. 예이츠 시 연구』(동국대출판부, 2002, 148면, 151면), W. B. Yeats, 김상무 역주, 『예이츠 서정시 전집(1): 아일랜드』(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284~287면), 김재봉, 앞의 글(54면) 등을 참고하였다.

즉 먼저 이 구절을 시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시를 집필하였다. 그리하여 이 구절은 〈1916년 부활절〉에서 가장 중요한 후렴구가 되었다. 예이츠는 식민 현실에 어느 정도 초연한 거리를 유지하여, 그의 시에는 ‘비극적 환희’라 할 수 있는 시들이 여러 편 있다.⁴³⁾ 〈1916년 부활절〉은 이러한 비극적 환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그의 시 가운데 드물게 현실에 밀착한 시이며, 특히 ‘terrible beauty’가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이츠와 육사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도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역시 식민 현실에 대한 대응이다. 예이츠의 시세계가 대개 아일랜드 독립투쟁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초연한 입장에 있었다면, 육사는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를 예이츠 시에 많이 나타나는 ‘비극적 환희(tragic joy)’와 구별하여, 보다 특별하게 사용된 ‘terrible beauty’와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예이츠의 〈1916년 부활절〉이 식민적 일상에서 시작하여 ‘terrible beauty’로 귀결되었다면, 〈절정〉은 식민권력의 ‘채찍’에 쫓기는 피동(被動)에서 시작하여 이에 맞서는 능동(能動)의 선언인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로 끝난다. ‘매서운(terrible)’ 추위의 겨울은 그 맞대응인 아름다운(beauty) ‘강철로 된 무지개’를 불러오지 않을 수 없다는 ‘terrible beauty’, 그것으로 〈절정〉은 마무리된다.

6. 맺음말

육사와 그의 시를 바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화두가 그의 아호 ‘陸史’라는 두 글자이다. 그가 처음부터 ‘陸史’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가 요양하면서 매화 한 폭을 그리고 ‘戮史’라고 서명하자, 옆에 있던 이영우가 이를 보고 “戮史는 역사를 죽인다는 표현이니,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말이 아닌가? 의미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차라리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온건한 표현이 되는 陸史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해서, 그 자리에서부터 ‘陸史’로 바뀌었다고 한다. ‘戮史’라는 호는 현재 두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⁴⁾

‘陸史’는 이처럼 ‘戮史’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냥 ‘대륙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베어버린다’ 또는 ‘새로 쓴다’고 해야 그의 진면목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육사가 당시 지배적인 담론과 개념을 베어내고 전복(顛覆)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에 각별하게 유의하지 않으면 육사를 다시 물구나무 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흰 무지개’를 발견하고도 그것

42) 이창배, 앞의 책, 154~155면.

43) W. B. Yeats, 김상무 역주, 앞의 책(514~614면)에는 ‘비극적 환희’란 항목으로 여러 편의 시가 소개되어 있다. 물론 〈1916년 부활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4) 김희곤, 앞의 책, 38~39면; 박현수 편, 앞의 책, 250~251면.

45) 도진순, 「육사의 「청포도」 재해석: ‘청포도’와 ‘청포’, 그리고 윤세주」, 『역사비평』 2016 봄(114)호.

을 ‘절망의 노래’라고 한 것이나, 청포도의 ‘청포(靑袍)’를 ‘귀한 자들이 입는 복장’으로 본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청포(靑袍)’에서 보듯이 육사는 자신이 존경하는 두보(杜甫)의 시어마저 혁명적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였다.⁴⁵⁾

‘강철로 된 무지개’는 일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의 장구한 역사에서 ‘흰 무지개’는 대개 ‘불온의 상징’이었다. 그는 해박한 안목으로 ‘흰 무지개’의 원천으로 올라가 그 건강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권력에 의해 전복된 이미지를 다시 전복시키고자 한 것이다. 변혁을 마다하는 권력 주도의 넓고도 긴 역사를 베어내는 절창이 바로 ‘강철로 된 무지개’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철로 된 무지개’야말로 ‘戮史’ 또는 ‘陸史’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강철로 된 무지개’란 결구로 해서, ‘매운 季節의 채썬에 갈겨’로 비상(非常)하게 시작하는 기구(起句)며,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서다’는 승구(承句)도,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는 전구(轉句)의 자문(自問)도,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라는 결구(結句)의 앞부분도, 다시 말하면 〈절정〉의 모든 구절들이 다시 새로운 힘과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기에 ‘강철로 된 무지개’를 읽고 나면 독자도 눈을 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시를 다시 읽지 않을 수 없다.

〈절정〉의 ‘절정’은 역시 ‘강철로 된 무지개’가 ‘겨울’과 결합된다는 데에 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 또는 부활과 짝하는 ‘terrible beauty’가 되어, ‘매운 계절’인 겨울마저도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강철로 된 무지개’야말로 오색영롱한 그 어떤 채색 무지개보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닌가? 우리 국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무지개가 아닐까?

ABSTRACT

Poem JeorJeong(climax) of Yi Yuksa: ‘Steel Rainbow’ and ‘Terrible Beauty’

Doh JinSoon (Professor, Depart. of History, Chgangwon National Univ.)

The core verse from the poem of Yi Yuksa, Joel-Jeong(climax) is the last verse, ‘winter might be the steel rainbow’. This study examines various views on the ‘steel rainbow’ to indicate invalid views based on following arguments:

1. The ‘steel rainbow’ is not a typical multi-colored rainbow readers perceive. The phrase is derived from ‘white rainbow’ of the ‘BaekHong GwanIl(白虹貫日)’ of which appeared when JingKe(荊軻) made an attempt to assassinate the First Qin Emperor(秦始皇).
2. Even though this ‘white rainbow’ was seen as a premonition of treason in the traditional society, the phrase became a symbol of patriotic struggl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independence movement as one can see with the case of Yun Bong-Gil(윤봉길).
- 3) Since Yi Yuksa could not directly use the expression ‘white rainbow’ due to the well-known 1918 ‘BaekHong(白虹) event’ in Japan, Yi Yuksa expressed the ‘white rainbow’ metaphorically as the ‘steel rainbow’.

The predominant view of the academia interprets the ‘steel rainbow’ as the ‘tragic ecstasy’ derived from the ‘tragic joy’ which was defined by W. B. Yeats. However, this interpretation of remotely accepting death and suffering is invalid considering the poetic world of Yuksa and Jeol-Jeong strongly endorsing the patriotic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Rather, the ‘steel rainbow’ can be comparable to the phrase ‘terrible beauty’ from Yates’ Easter 1916. The ‘terribly beauty’ portrays the terrible oppression of the British Empire rather strengthened the passion of the Irish independence.

Key Words: steel/rainbow, jīngkē(荊軻), yishuǐgē(易水歌), white rainbow(白虹), tragic ecstasy, terrible beauty.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삼국사기』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sg>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ntro/intro_info.jsp

『月令』: <http://baike.baidu.com/view/902742.htm>

2. 논문 및 단행본

구본현, 『漢詩 絶句의 기승전결 구성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30호, 2014.

권영민, 『이육사의 <절정>과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의미』, 국립국어원, 『새국어생활』 1999년 9-1호.

김용권, 『에이츠 시 번(오)역 100년: “He wishes for the Cloths of Heaven”을 중심으로』, The Yeats Journal of Korea(한국 에이츠 저널), Vol. 40, 2013.

김용직 · 손병희 편, 『이육사 전집』, 깊은샘, 2004.

김재봉, 2010, 『집단추모의 한 양식: 에이츠의 ‘1916년 부활절’』, The Yeats Journal of Korea(한국 에이츠 저널), Vol.33.

김재홍, 『육사 이원록』,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김종길, 『육사의 시』, 『나라사랑』 16집, 1974년 가을호.

김종길, 『한국시에 있어서의 비극적 황홀』, 『심상』 1973년 11월호.

김희곤, 『이육사 평전』, 푸른역사, 2010.

도진순, 『육사의 <청포도> 재해석: ‘청포도’와 ‘청포’, 그리고 윤세주』, 『역사비평』 2016년 봄(114)호.

류순태, 『이육사 시 <절정>의 비극적 실존 의식과 저항성 연구』, 우리문학회, 『우리문학연구』 38, 2013.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7권, 『禮記臆一』.

마광수, 『이육사의 시 <절정>의 또 다른 해석』, 『현대문학의 연구』, Vol.16, 2001.

박민영, 『고원에 뜬 흰 무지개 : 이육사의 <絶頂>』, 시안사, 『시안』 겨울호, 2009.

박현수 편, 『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 예옥, 2008.

신석초, 『이육사의 생애와 시』, 『사상계』 1964년 7월호.

안상학, 『서릿발 칼날진 그 우에 서다』, 『영남일보』 2008년 10월 20일.

오세영, 『육사의 <절정>: 비극적 초월과 세계인식』, 『한국현대시작품론』, 문장, 1981.

오탁번, 『韓國現代詩史의 對位的 構造』,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1988.

오하근, 『시작품 해석의 오류 연구; 이육사 <절정>의 경우』, 『한국언어문학』 40, 1998.

이원조 편, 『육사시집』, 서울출판사, 1946.

이창배, 『W. B. 에이츠 시 연구』, 동국대출판부, 2002.

임도현, 『에이츠의 비극적 환의와 영웅주의』, 『현대영미드라마』 23, 2010.

장도준, 『최종적 형위와 세계 인식』, 『연세어문학』 18, 1985.

정한모, 『육사시의 특질과 시사적 의의』, 『현대시론』 보성문화사, 1988.

최재희, 『1916년 부활절 붕기, 아일랜드 민족운동의 전환점』, 『역사비평』 67, 역사비평사, 2004.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한명희, 『절망의 절정에서 생각하는 지지 않는 무지개』, 『시의 아포리아를 넘어서』, 이룸, 2001.

홍기삼, 『혁명의지와 시의 복합』, 『문학사상』 1월호, 1976.

洪焉, 『尹奉吉義士 虹口炸擊 十首』, 『東海詩抄』, 1932[매헌윤봉길전집 편찬위원회, 『매헌윤봉길전집』 6권, 매헌윤 봉길의사기념사업회, 2012, 41-42면, 786-788면].

W. B. Yeats, 김상무 역주, 『에이츠 서정시 전집(1): 아일랜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張道一, 2006, 『漢畫故事』, 重慶大學出版社.

이육사, 윤동주 비교론

김 관 응(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 1. 들어가는 말
- 2. 이육사와 윤동주 생애의 이질성
- 3. 이육사와 윤동주 시세계의 이질성
- 4. 이육사와 윤동주 시정신의 동질성
- 5. 우리가 오늘 이육사와 윤동주를 기리는 이유

1. 들어가는 말

한반도 남녘땅 영남에서 태어난 이육사(李陸史)와 한반도 북녘땅과 두만강을 사이두고 인접해 있는 북간도에서 태어난 윤동주(尹東柱)는 모두 일제강점기 암흑기의 밤하늘에 새별처럼 나타나 암중모색하거나 갈길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백의동포들에게 한줄기 광명의 빛을 드리워준 저항시인, 민족시인으로 우리 민족의 머리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최근 몇년동안 한국 안동시 이육사문학관의 후원과 연변작가협회의 주최로 해마다 “이육사 문학축제”를 이곳 윤동주의 고향인 연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고 가치 있는 문화 행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육사문학축제”에 참가할 때마다 이육사와 함께 우리 고향 북간도의 시인 윤동주를 머리속에 떠올리곤 한다.

비교를 해야만 양자의 개성을 모다 극명하게 변별해 낼수 있고, 아울러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동질성을 찾아낼 수 있다. 오늘 필자는 이 기회에 이육사와 윤동주에 대한 비교를 통해 먼저 이 두 시인의 이질성을 파헤침으로써 앞으로 남과 북의 이 두 시인의 인격 및 문학적 개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아울러 이 두 시인의 시정신에 존재하는 동질성을 찾아냄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에게 참된 인간, 참된 문학의 본질에 대해 보여드리고자 한다.

2. 이육사와 윤동주 생애의 이질성

중국 고대문학이론에서는 “지인논세(知人论世)”라는 범주가 있다. 이는 한 작품에 대해 깊이 있게 잘 파악하려면 그 작품을 창작한 작자 그리고 그 작자가 살았던 시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육사와 윤동주의 생애는 많은 면에서 이질성을 갖고 있다.

1904년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원촌동에서 태어난 이육사는 “해동의 공자(孔子)”로 불렸던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의 13대손인 이가호(李家鎬)와 의병장 허형(許衡)의 딸인 허길(許吉) 사이에서 태어났다.¹⁾ 이처럼 전통적인 유가풍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육사는 여섯살 무렵부터 小學을 배운 그는 古文眞寶와 八大家에 이어 四書三經을 배웠다. 뒷날 1935년에 이육사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심문 받을 적에 자신의 종교를 “유교”라고 답한 일이 있었다.²⁾ 이처럼 그는 열다섯살까지 10년 남짓이 조부로부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유교의 도(道)를 배우면서 “사생취의(舍生取義)”,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고매한 선비정신을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시절 유교에 의한 서당식 교육은 이육사의 인생관과 가치관 나아가서는 그의 지성과 문학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³⁾ 특히 이런 한학(漢學) 소양은 그의 문학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가 중국 북경에서 대학을 다니고 또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 반항 정신이 가장 강한 좌익작가 로신(魯迅, 1881-1936)의 참여문학에 경도하여 1933년 6월에는 상해에 가서 로신을 직접 배알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놓았던 것만은 분명하다.⁴⁾ 그리고 유교의 도의정신으로 인해 그는 의열단에 입단하고 조선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직접적인 항일활동을 벌리다가 자주 검거되어 옥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일제 관헌으로부터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지목되어 나중에는 체포되어 북경에서 옥사하게 된다. 이육사(李陸史)라는 이 이름은 ‘二六四’라는 숫자에서 온것인데 이 숫자는 그가 대구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에게 붙여졌던 수인번호에서 비롯된 것이란 사실은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다.⁵⁾ 생각만 하는 지성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이었던 이육사는 수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제의 폭압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친일파나 일제식민통치의 순민으로 되었던 것과는 달리 죽을 때까지 자기의 초지를 잃지 않고 일제와 용감하게 씨웠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이육사는 단지 저항시인만이 아니라 독립투사, 항일지사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1917년 중국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난 윤동주의 조상은 한반도의 제일 변두리인 함경북도 회령군의 평범한 농부였으며, 살길을 찾아 북간도로 이주하여 온 이민 1세였다. 윤동주의 조부와 부친은 모두 명동촌에서 기독교 신자로 되었고, 조부 윤하현은 윤동주가 태어날 무렵에는 명동교회의 장로이었다. 그래서 윤동주는 태어나서 얼마 안되어 유아세례를

1) 김희곤,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 지영사, 2000년, 제39페이지를 참조하라.
2) <증인 李源祿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 31, 1997년 제194페이지.
3) 강창민 《李陸史 詩의 研究》, 국학자료원, 2002년, 제35-37페이지를 참조하라.
4) 이육사 <로신추도문>, 《이육사전집》, 제145-146쪽을 참조하라.
5) 김희곤 <이육사 민족문제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23, 한국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4년, 146페이지를 참조하라.

받았다. 또 명동교회의 목사이고 북간도 최초의 조선인이민자치단체 간민회의 초대 회장이었던 외삼촌 김약연(金若然, 1868-1942)의 영향아래 일찍부터 민족의식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⁶⁾ 그리고 운동주가 다녔던 명동학교 그리고 그뒤 그가 다닌 용정 은진중학교, 평양 숭실전문학교, 서울 연희전문학교, 일본 립교대학 모두 기독교에서 운영한 학교들로서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아주 짙었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영어권에 속하는 미국, 캐나다 선교집단의 강력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에 운동주는 영어를 보다 깊게 배울 목적으로 일본유학의 길을 택하게 된다. 그는 후쿠오카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면서도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 바로 이런 까닭에 기독교문화는 운동주의 인생관, 종교관, 가치관, 문학관의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육사가 중국 현대 좌익문학의 대표주자였던 로신을 숭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 같은 서구의 상징파 시인에 경도되었던 것이다.

1943년 7월, 운동주는 일본에서 독립운동의 혐의로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45년 2월 16일에 29세의 젊은 나이에 옥사했다는 점은 이육사의 최후와 아주 비슷하다. 하지만 운동주가 독립운동의 혐의로 투옥되었지만 그 운동의 실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석연치 않다. 때문에 운동주를 이육사와 같은 차원의 독립운동가나 항일지사로 평가하는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처럼 이육사와 운동주는 그 출신, 성분, 가문, 출생년대, 사상 토대 등 생애의 여러 면에서 많은 이질성을 갖고 있다.

3. 이육사와 운동주 시세계의 이질성

이육사와 운동주 시세계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전면적이고도 심도있게 비교한다는 것은 한편의 논문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육사의 <광야>, <절정>이나 운동주의 <서시>, <참회록> 같은 일부 대표작에 나타나는 중요한 이미지에만 국한시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이육사 시의 경우

이육사가 생존했던 시기는 “절체절명의 궁지에 봉착한 한민족의 극한기”였다. 마치도 유대인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자신들을 구해줄수 있는 신인 메시아(messiah)의 강령을 갈망하였듯이 한국인들도 다수 이런 궁지에 빠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시켜줄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신을 갈구하게 된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나 역사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있었고 또한

6) 윤일주 <선백의 생애>, 최문식, 김동훈 편 《운동주유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6년, 제147페이지를 참조하라.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한 시인의 의식구조를 해명하는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이다. 이육사의 시세계를 파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육사의 전체시 36편중, 신(神)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라는 서정시에서 “영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神이란 항상 거룩합시니”라는 단 한번 뿐이다. 그리고 이육사의 시들에서 “신”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신적인 존재를 암시한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더러 발견된다. 이를테면 <절정>에서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한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라는 이 두줄 시행 중 “어데다”는 공간을 지칭하는 부사가 아니라 신 같은 절대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보아야 할것이다. 그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 복종과 구원을 간청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신적인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육사의 시에 등장하는 “하늘”, “해”, “별” 같은 것도 신적 표상의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지만 신적인 표상은 아주 피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장 빈도도 운동주의 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운동주의 등장하는 동일한 이미지와 대비한다면 이런것들은 자연적 대상으로서의 이미지이지 종교적, 신앙적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육사의 시들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에서 신적인 이미지보다는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초인적인 대상으로서의 거인이나 초인이란 이미지가 가장 유표하게 독자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거인의 탄생을 축복하는 노래의 합주!

하늘에 사모치는 거룩한 기쁨의 소리!

—<海潮词>(1937.4)마지막 련

이 <海潮词>에서 나타난 거인의 탄생은 잡다한 바다의 파도소리중의 하나로서 시 전반에 관통된 이미지는 아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러한 복잡한 소리속에서 암시적으로 조국을 구원해줄 거인의 탄생을 갈망하는 시인의 간절한 심정은 그래도 얼마간 안겨온다. 하지만 <광야>에 등장하는 초인(超人)은 전반을 관통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국을 구원해줄 슈퍼맨의 탄생을 갈망하는 시인의 간절한 심정보다 절절하게 안게 온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소리 들렸어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하여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친 못하였느니라

끊임없는 평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선 지고

큰 강물이 드디어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에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묵놓아 부르게 하리라

—〈광야〉 연대 미상

이 시는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절망적 현실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염원하는 의지와 시정신을 기조로 시적 기교의 극치를 보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인은 비록 붓이나 야훼나 알라 같은 신처럼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글자 그대로 일반 인간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이다. 하기에 초인이 타고오는 말도 숭엄하고 고귀함을 상징하는 흰색이다.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고고하면서도 엄숙하다.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가득한 곳으로 초인은 백마를 타고 온다. 이 시에서 등장하는 초인은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 밝음으로 세상을 다스렸다는 신라의 개국주 박혁거세 같은 위인이나 만주별판에서 말 타고 칼을 휘둘러 영토를 엄청나게 크게 넓혔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같은 한민족의 성군들이나 남행에서 거북선을 지휘하여 왜구 해적선들을 타승하여 조국을 위기에서 구해낸 조선의 명장 이순신 같은 애국명장들을 연상케 한다. 민족계몽의 선두주자였던 이광수 같은 이들마저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민족의 전도를 비관하여 친일의 길에 들어섰던 그 한치앞도 분간할수 없었던 일제 식민통치의 암흑기에 이육사가 조국광복의 희망인 이 초인을 “천고의 뒤에” 오는 존재로 설정한것은 이해할만 일이다. 비록 조국의 광복을 까마아득한 미래로 간주하였으나 민족에 대한 애정이 넘치고 민족의 앞날에 대한 낙관으로 넘치는 이 시는 무한한 매력을 갖고 영원히 전승되어 갈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는다.

한마디로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유교사상에 뿌리를 내린 이육사의 시들에서는 주로 신이 아닌 인간들에게 조국광복의 희망을 기탁하였다. 나는 이것이 바로 이육사 시세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육사의 시세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일제식민지통치하의 한민족의 참담한 현실앞에서도 낙망하지 않은 적극적 낭만주의 시정신이다. 이런 낙천적인 정신을 가장 리얼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연대미상의 〈꽃〉이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방울도 내리잖은 그 때에도

오히려 꽃은 발강게 피지 않았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노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꽃〉 1,2연

이 시는 영국의 적극적 낭만주의시인 셸리(Shelley, 1792 -1822)의 “겨울이 이미 왔거늘 봄이 어찌 멀리 있을소냐?”라는 시구를 연상시키는 시이다. 이육사의 〈꽃〉에서 시적 화자는 빙설이 뒤덮힌 툰드라에도 어느 때엔가에는 꽃이 피고 제비떼가 날아오는 봄날을 “저버리지 못할 약속” 때문에 “목숨을 꾸며” 애타게 기다린다. 여기서 “꽃 피고 제비떼 날아오는” 봄날은 조국의 광복을, “기다림”은 조국광복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인 이육사의 간절한 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풀이를 해도 대과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육사의 시세계에는 사실주의적인 경향과 함께 적극적 낭만주의적인 성향도 다분함을 보아낼 수 있다.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굳은 믿음이 이육사로 하여금 옥중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변절하지 않고 올곧게 지조를 지킬수 있게 한 가장 큰 정신적 원동력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이육사는 나라와 민족의 절망과 비극이 절정이 달한 시기에도 실제 삶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했으며, 시세계에서도 비애와 허무의 나락에 떨어지거나 비현실적인 세계로 도피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리하여 그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집요하게 응시하고 나라와 민족의 비극에 고통스러워 하면서 오불관연의 이기적인 자세를 갖지 않았다. 그러면 이러한 민족 사랑, 나라 사랑의 원동력을 어디서 온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성실함과 정성과 충성이었다. 그런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신본위(神本位)가 아닌 인간본위의 유교적 도의정신에서 기인되는 것이었다.

둘째, 윤동주 시의 경우

이육사 시세계의 바탕이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윤동주 시세계는 기독교적인 것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비록 이육사의 시들에 나타난 이미지들과 비슷한 것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많이 다르다. 그 사례를 몇개만 들어 본다.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전신주가 잉잉 울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계시일까
-〈또 태초의 아침〉

이 시를 통해 우리는 윤동주는 겨울철 추위에 잉잉 우는 전신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려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알 수 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왔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워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십자가〉전문

이 시에는 기독교의 속죄의식이 여실하게 나타난다.
이상의 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나 십자가는 바로 기독교에서 신앙하는 유일신 야훼(Yahweh)와 그의 독생자 예수(Jesus)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적 이미지이다.

하나 내 모든 것을 여념없이
물결에 씻어보내려니
당신은 湖面으로 나를 불러내소서
-〈异迹〉마지막 연

〈异迹〉에서는 《신약성서》중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다. 예수가 자기의 수제자인 베드로(Peter)를 갈릴리 호수위로 견게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았듯이 윤동주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기에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윤동주 시의 이런 모습은 다른 형태의 신적인 이미지에서도 드러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 전문

〈서시〉중의 “하늘”은 바로 기독교의 유일신 하나님이다. 즉 시적 화자가 죽는날까지 “우리러” 보아야 할 신성불가침의 대상이다. 시적 화자는 이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늘”을 우리러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시적 화자는 하늘을 우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게 당시 일제강점기 암흑기를 살아가는 많은 백의민족 구성원들의 삶이었다. 하기에 윤동주의 시들중에는 속죄와 참회를 주제로 하는 시들이 유난이 많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참회록〉이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滿)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참회록〉 전문

이 시에 드러난 감정은 조국광복을 위해 백마를 탄 초인을 목청껏 부르는 이육사의 외향적인 감정과는 판연히 다르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자아성찰의 내향적인 감정이요, 부끄러움

의 감정이다. 윤동주가 이 〈참회록〉을 쓰게 된데는 그럴만한 원인이 있었다.

1939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창씨개명령”이 선포된 후 애국계몽기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로부터 시작되는 “애국가”의 가사를 짓기도 했던 서울 연희전문학교 교장 윤치호(尹致昊, 1865-1945)는 친일행각을 하면서 일본식으로 “伊东致昊”로 창씨개명을 하고 나섰다. 이에 연희전문학교과 이화여전의 학생들은 “이 똥 치위”라는 조롱 섞인 말로 윤치호를 비난했다. 이런 학생들속에 윤동주도 끼여 있었을 것만은 의심할바 없다.⁷⁾ 하지만 그 뒤로 2년 뒤인 1941년 연말, 일본연합합대가 하와이 진주만 미해군기지를 기습공격하던 그 무렵에 윤동주네 식구들은 일제의 압력에 더는 견딜 수 없어, 또한 윤동주가 순조롭게 일본유학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문의 성인 윤(尹)씨를 히라누마(平沼)라는 일본식 성으로 고쳤다. 이리하여 윤동주는 1942년 1월 19일 연희전문학교에 성(姓)을 고칠데 관한 신청서를 교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윤동주는 부끄러움을 참을래야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1942년 1월 24일에 윤동주는 당시의 부끄러운 심경을 담아서 〈참회록〉을 썼던 것이다.⁸⁾

윤동주가 창씨개명한 것은 막부득이한 상황에서의 일본에 유학을 가기 위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윤동주는 창씨개명을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인 자기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 〈참회록〉을 쓴것이다. 이러한 욱됨, 부끄러움의 심상은 〈참회록〉만 아니라 윤동주의 〈자화상〉, 〈또 태초의 아침〉, 〈길〉, 〈쉽게 씌어진 시〉, 〈사랑스러운 추억〉, 〈별 헤는 밤〉 같은 시들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적잖은 조선의 지식인이나 문필가들이 창씨개명을 하고 친일문학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참회를 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감안한다면 20대 초반의 윤동주의 일련의 시들에서 나타난 참회정신은 참으로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언이폐지하면 윤동주의 시들에는 이육사의 시세계에 나타난 반항, 희망 같은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속죄, 참회의 감정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바로 이 점이 수많은 한민족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원죄설에 바탕을 둔 기독교문화권과는 달리 속죄의 식이나 참회정신이 부족한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정신적 자세였기 때문이다. 어찌면 일제식민지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부끄러움을 안고 있는 한민족을 대신하여 스물살 전후의 나젊은 청년이 뼈저리게 참회를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또한 반항, 희망을 주축으로 하는 이육사의 시세계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7) 리광인 〈윤동주론〉, 《광복전 거레작가론》2015년, 연변대학출판사, 제273페이지를 참조하라.

8) 최문식, 김동훈 편 《윤동주유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6년, 제326페이지를 참조하라.

4. 이육사와 윤동주 시정신의 동질성

윤동주는 이육사보다 비록 13살 연하이기는 하지만 모두 일제강점기, 특히 일제통치의 암흑기를 살아가면서 시창작을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식민지시대라는 기준을 놓고 본다면 이육사와 윤동주는 동시대인이라고 할수 있다. 이 두 시인은 모두 일제식민지 시대를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국의 상실에서 회복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동일성을 갖고 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이육사와 윤동주의 시정신은 많은 이질성과 더불어 많은 동질성을 갖고있다.

한용운의 시정신이 불교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듯이 이육사의 시정신은 유교의 토양에, 윤동주의 시정신은 기독교의 토양에 각각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일제식민지시대를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제식민통치에 용감하게 반항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참회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동질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이들의 시정신에는 모두 애국, 애족의 시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동질성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이육사나 윤동주의 시세계는 각각 유교나 기독교와 아어지고는 있으나 이들의 시정신의 핵심은 민족사랑, 나라사랑에 있었다. 서울연희전문학교에 다닐때 윤동주는 후배인 장덕순(張德順, 1921~1996)에게 “문학은 민족 사상의 기초우에 있어야 한다”고 피력한 점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이육사, 윤동주는 모두 일제강점기 한민족문학사에서 저항시인 또는 민족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동주는 일본에 건너간 뒤에는 “조선독립운동을 했다”죄명으로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나중에는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물론 윤동주의 독립운동은 무장을 들고 일제와 싸웠거나 항일 독립단체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항일운동에 참가한 이육사와는 좀 다르기는 하다. 윤동주는 학창시절 배움의 길에서 민족문화를 고창하는 방식으로, 주로 시를 무기로 그 나름대로의 항일독립운동에 나섰던것이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모두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이 점에서 윤동주는 이육사와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5. 우리가 오늘 이육사와 윤동주를 기리는 이유

우리들이 오늘날까지 이육사와 윤동주를 기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귀납할수 있다.

첫째, 일제식민지통치 말기에 이광수 같은 거물급 문인을 포함하여 우리 민족의 대부분 문인들이 변절하여 친일행위를 한 반면 이육사와 윤동주는 끝까지 민족적인 신념을 가지고 일제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사육신(死六臣) 중의 한사람인 성삼문(成三問, 1418 ~ 1456)의 시조에서처럼 이육사와 윤동주는 “백설이 만견곤할제 독야청청”한 불변의 지조를 갖고 있는 “봉래

산 꼭대기의 낙락장송” 같은 도의와 절개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육사와 윤동주는 자신들의 이런 도의와 절개 그리고 저항 혹은 참회를 성숙한 시작들을 통해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육사가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비극을 소재로 강렬한 저항의지를 나타내고 꺼지지 않는 민족의 의지를 장엄하게 노래했다면, 윤동주는 자기의 나약함을 언제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참회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살려는 희망을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신숭배와 이기주의가 날로 팽배해가고 있는 오늘날 시장경제와 도시사회의 타류속에서 적잖은 이들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오불관연이라고 하면서 자기 일신의 이익과 욕망만 채워가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 같은 것은 숫제 안중에 없고, 사람들은 날로 철면피해 가고 양지와 시비지심을 잃고 도덕불감증에 걸려 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하에서 이육사의 생애와 그의 시들이 보여준 선비정신에 립각한 민족과 나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 그리고 윤동주의 생애와 그의 시들이 보여준 “부끄럼의 미학”과 속죄의식, 참회정신은 우리들의 찌들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영약으로 되고, 우리의 추레한 마음을 비춰주는 등불 같은 존재로 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오늘 이육사와 윤동주를 기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

2016.6.25 장춘에서

문학강연

시를 쓰는 몇 가지 방법



공광규 시인

1960년 서울 출생, 충남 청양에서 성장
동국대 국문과와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문학박사)
1986년 월간《동서문학》으로 등단
시집 『대학일기』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지독한 불륜』 『소주병』
『말뚝 한 덩이』 『담장을 허물다』
동시그림책 『구름』 『청양장』 『흰눈』 『담장을 허물었어요』(근간)
산문집 『맑은 슬픔』(근간)
논문집 『신경림 시의 창작방법 연구』 『시 쓰기와 읽기의 방법』
『여성시 읽기의 행복』
시창작론 『이야기가 있는 시 창작 수업』
신라문학대상, 윤동주상문학대상, 김만중문학상, 동국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고양행주문학상, 디카시작품상 수상

시를 쓰는 몇 가지 방법

공 광 규(시인)

시를 쓰는 몇 가지 방법은 1986년 등단 이후 시를 쓰면서 떠오른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사례로 인용되는 시집 『소주병』(실천문학사, 2004), 『말뚝 한 덩어』(실천문학사, 2008), 『담장을 허물다』(창비, 2013)입니다. 시 창작 방법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면 시 창작 강의경험을 이야기로 구성한 책인 『이야기가 있는 시 창작 수업』(시인동네, 2014 개정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험을 옮긴다.

시 쓰기 시작은 경험을 공책에 옮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경험을 그냥 옮기는 것은 아니고, 경험에서 오는 서정적 충동을 옮기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났을 때 느낌(feel, 성적충동=서정적 충동)이 와야 연애가 시작되는 것처럼, 시인이 사물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느낌(서정적 충동)이 와야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물과 연애하는 사람입니다. 사물이 나에게서 도망가지 않도록 잘 관찰하고 비위를 맞추며 정성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이는 서정적 충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상상력은 경험에서 받아옵니다. 경험은 자신이 체험한 직접경험과 독서나 대화에서 얻는 간접경험이 있는데, 경험이 많을수록 시 쓰기에 유리할 겁니다. 천 가지 경험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는 바로 아이디어, 즉 발상입니다.

시인을 포함한 예술가는 끊임없이 다른 경험세계를 만나서 새로움을 창조합니다. 새로운 경험에서 나온 서정적 충동을 시로 옮겨 놓으면, 독자는 그것을 읽고 새로운 세계에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감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아마추어 문예공모전 심사평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가 자기 삶의 경험에서 양성된 정서의 압축된 표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직업에 따른 독특한 분위기가 배어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투고된 시들을 읽어 보니, 직무와 연관된 발상이나 생활의 직접적 투영이라 여겨지는 작품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직장생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체험이라든가 복잡한 도시생활과 대비되는 농촌적 경험, 또는 자연풍경 속에서의 순화된 감정세계 등이 시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염무웅, 2009년 금융인문화제 시부문 심사평)

이처럼 대부분 초보자들은 시를 자기 경험을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고하고 막연한 곳, 좀 다른 세계에 시의 제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반영하고 확장한 개성 있는 시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뻘하고, 생동감도 없습니다. 아래 시는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죽음을 옮긴 것입니다. 4살 아래 실제 남동생이 죽었고, 그 경험을 쓴 것입니다.

입을 꼭 다문 아버지는

죽은 동생을 가마니에 둘둘 말아

앞산 돌밭에 가 당신의 가슴을 아주 눌러놓고 오고

실성한 어머니는 며칠 밤낮을

구옥구옥 울며 마을 논밭을 맨발로 쏘다녔다

비가 오는 날이면

누군가 밖에서 구옥구옥 젖을 구걸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는 “누구유!” 하며 방문을 열어젖혔는데

그때마다 산비둘기 몇 마리가

뭐라고 뭐라고

젖은 마당에 상형문자를 찍어놓고 돌밭으로 날아갔다

어머니가 그걸 읽고 돌밭으로 가면

도라지꽃이 물방울을 매달고 서럽게 피어 있었다

— 「애장터」 전문

우스갯소리를 하면, 혼자 사는 할머니와 실패한 예술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감’입니다. 그런데 이 ‘영감’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영감은 다른 세계, 낯선 세계와 만나는 경계선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영감과 만나려면 다른 세계를 만나야 합니다. 다른 세계를 만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여행과 독서, 대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남의 경험을 훑치는 독서를 해야 하는데, 다른 예술에서도 독서 경험은 영감을 불러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인 릴케는 조각가 로댕의 비서였습니다. 릴케의 기록에 의하면 로댕은 주머니가 항상 볼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각을 하기 위한 연장이었겠지? 아닙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었다고 합니다. 로댕은 독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영감으로 <지옥의 문>이라는 위대한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예술 창작을 위해서는 다른 세계와 만나는 다양한 독서 경험 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작뿐이 아니고 과학이나 정치를 하더라도 독서체험은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의 성공적인 사람들은 책 읽기에서 시작해 책 쓰기로 끝냈습니다. 빌게이츠는 어려서 자기 동네 도서관 책을 몽땅 읽었다고 합니다. 동네도서관 출신인 빌게이츠의 창의력은 바로 독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이라는 사람은 시에서 아이디어를 떠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대학중퇴 후 리즈대학의 인문학 강좌에서 붓글씨에 매혹되어 배웠다고 합니다. 창업 시 맥 컴퓨터 서체를 실제 붓글씨로 공부하고 디자인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다른 경험, 낯선 세계를 경험하여 창조력을 발휘한 사례입니다.

아래 시 「수종사 풍경」은 남양주 수종사 여행 경험을 시로 쓴 것입니다. 수종사 여행 경험이 없었다면 이 시를 쓰지 못했을 겁니다. 종교시들과 마찬가지로 여행시들도 대개 실패를 하는 데¹⁾, 아래 시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은 여행정보를 거의 없애고 개인의 감정을 외물인 수종사 풍경에 의탁하였기 때문입니다.

양수강이 봄물을 퍼 올려
온 산이 파랗게 출렁일 때
강에서 올라온 물고기가
처마 끝에 매달려 참선을 시작했다

햇볕에 날아간 살과 뼈
눈과 비에 얹어진 몸
바람이 와서 마른 몸을 때릴 때
몸이 부서지는 맑은 소리

—「수종사 풍경」 전문

1) 진리에 대한 정보는 종교경전에 다 있고, 여행정보는 여행 안내서에 다 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유행가이며,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새롭게 쓰는 것이 시다.

둘째, 이야기를 꾸며낸다.

경험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시가 안 됩니다. 인간의 경험은 그렇게 다양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으로만 시를 쓴다면 평생동안 몇 편뿐이 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경험의 조각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백일장이나 청탁을 받고 막상 시를 쓰려면 더 이상 시를 쓸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많은 시인들이 좋은 시를 다 써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창작자가 경험에서 상상력을 발전시켜 이야기를 꾸며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는 춤이나 음악이나 영화 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운문의 창조자가 아니라 이야기나 구성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아리스토텔레스) 시인의 기능은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온갖 경험을 섞고 흔들어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경험의 횡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애 시를 많이 썼다고 연애를 많이 한 시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연애 횡수를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시는 실제 경험한 사건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받아시킨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꾸며가야 합니다.

상상력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종교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문자와 도시, 법률, 교육 등 모든 제도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상상력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별국」은 어머니와 함께 했던 몇 개의 흐릿한 경험조각들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한편의 이야기로 엮은 것입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덕국을 끓이셨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손님처럼 마루에 앉히시고

흰 사기그릇이 앉아 있는 밥상을
조심조심 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국물 속에 떠 있는 별들

어떤 때는 손가락에 달이 건져 올라와
배가 불렀다

손가락과 별이 부딪히는
맑은 국그릇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어머니의 눈에서
별빛 사리가 쏟아졌다.
— 「별국」 전문

1~3연은 경험의 조각을 모은 것이고, 4~7연은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모두 실제 제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쓴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로 만든 허구입니다.

이 시에는 몇 개의 심상이 나타납니다. 제 시의 기법적 계보는 정지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학 문학개론 시간에 정지용의 시 「유리창」을 배우는 순간, 이렇게 시를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지용 시를 만나기 전에는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시를 쓰고 낭독회를 여러 번 해보았지만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정지용의 시를 만나면서 시의 원리를 깨우친 것입니다. 시 창작 방법을 방황을 하다가 멘토를 만난 것입니다. 창작에서도 멘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시는 지금까지도 심상 중심입니다.

‘별국’, ‘별빛 사리’는 상상력을 통해 심상으로 창조한 어휘입니다. ‘멀덕국’은 충청도 사투리인데, 사투리를 시어로 제도권에 진입시킨 사례입니다. 시가 변방의 언어를 중심의 언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휘의 창조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어휘는 지금 영어를 세계 제일의 공용어로 만드는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²⁾ 아래 시 「완행 버스로 다녀왔다」는 실제로 광화문에서 완행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경험한 사례를 이야기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2)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단어 양은 영문학상 최고이며, 그가 새로 만든 단어는 세는 방법에 따라 2,076개라는 주장도 있고, 6,700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당시에 영어단어가 15만 개였고, 그가 사용한 단어가 2만 개였으니 그는 자기가 사용한 단어의 10%를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폴 존슨, 『창조자들』, 황금가지, 2009. 100쪽 참조)

오랜만에 광화문에서
일산 가는 완행버스를 탔다
넓고 빠른 길로
몇 군데 정거장을 거쳐 직행하는 버스를 보내고
완행버스를 탔다
이곳저곳 좁은 길을 거쳐
사람이 자주 타고 내리는 완행버스를 타고 가며
남원추어탕집 앞도 지나고
파주옥 앞도 지나고
전주비빔밥집 앞도 지나고
스캔들 양주집 간판과
희망맥주집 앞을 지났다
고등학교 앞에서는 탕글탱글한 학생들이
기분 좋게 담뱃 타는 걸 보고 잠깐 졸았다
그리는 사이 버스는 뉴욕제과를 지나서
파리양잠점 앞에서
천국부동산을 향해 가고 있었다

천국을 빼고는
이미 내가 다 여행 삼아 다녀본 곳이다
완행버스를 타고 가며
남원, 파주, 전주, 파리, 뉴욕을
다시 한 번 다녀온 것만 같다
고등학교도 다시 다녀보고
스캔들도 다시 일으켜보고
희망을 시원한 맥주처럼 마시고 온 것 같다

직행버스를 타고 갈 수 없는 곳을
느릿느릿한 완행버스로 다녀왔다.

— 「완행버스로 다녀왔다」 전문

셋째, 솔직하게 표현한다.

시는 자신의 생각을 거짓 없이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동양시학의 제일 원리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사무사(思無邪)입니다. 시를 대할 때 거짓이 없이 대하라, 정직하라, 솔직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창작자나 독자, 편집자 모두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공자의 문학관입니다.

시는 자기 생각을 거짓 없이 꺼내 종이 위에 옮기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이나 진실은 자신을 위협하게 하고 남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은 거짓말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시는 자기 생각을 거짓 없이 문장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술양식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고 싶어 하는 본래 마음을 대신하여 솔직히 드러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는 자기의 생각을 진솔하게 토로하는 고해성사 행위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고해성사 제도 때문에 유지되는 것처럼, 시의 권위도 이런 고해성사적 요소 때문에 유지되는지도 모릅니다. 일기를 쓰면서 청소년기의 혼돈을 극복하고, 연애편지를 쓰면서 사랑하고 떨리고 보고 싶은 마음을 가다듬는 것처럼, 시도 다른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자기 고백을 통한 자기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시 치료, 문학치료, 예술치료가 오래전부터 학문화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하고 싶고, 술 취하고 싶고, 미워하고, 더 미워하면 죽이고 싶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존재입니다. 종교와 법률은 인간이 원래 이러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경전과 법률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지 때문에 정신이 분열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원래 마음을 시인이 대신 표현하여 주면, 독자들은 시를 읽고 “그래, 이거 내 마음이야.”라고 공감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폭설」입니다.

술집과 노래방을 거친

늦은 귀가길

나는 불경하게도

이웃집 여자가 보고 싶다

그래도 이런 나를

하느님은 사랑하시는지

내 발자국을 따라오시며

자꾸 자꾸 폭설로 지워 주신다.

— 「폭설」 전문

저는 이 시집을 내면 실제 이 시를 시집의 맨 앞에 놔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독자가 이 시를 읽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자기검열 때문입니다. 정치시, 성과 관련된 시를 쓸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이 시를 편집해서 보냈는데, 편집자가 맨 앞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이 시를 읽은 어느 분은 자신의 속마음을 대신하여 잘 썼다고 탄복하기도 합니다. 어느 분은 제가 이웃집 여자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놀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웃집 남편이 찾아오지 않았느냐는 농담을 걸기도 합니다. 시가 이렇게 대중의 입에서 이야기 거리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건드리고 그 본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위 시의 내용은 실제 이웃집 여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중년 남성의 자기용서와 자기위로의 시입니다. 퇴폐한 자본주의 소비문화에 포섭된 우리나라의 중년 남성문화를 풍자한 것입니다. 화자를 일인칭으로 했으니 자기 풍자의 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의 저녁 문화는 대개 술집에서 술집으로 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술을 잘 먹는 놈이 남자답고 쫌쫌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술 잘 먹는 남자가 실제 수입도 더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다고 합니다. 술 잘 먹는 놈이 출세한다는 신화가 여전합니다. 이건 좋건 나쁘건 현실을 지배하는 문화와 관습이어서 극복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시의 내용과 시인의 삶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는 단지 창작물입니다. 시와 시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시인은 가난하고 술주정뱅이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나 시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규보나 정약용은 정치에 적극적인 공무원이었으며, 모택동이나 호지명은 나라를 세운 정치가입니다. 엘리엇은 평생 벡타이를 풀지 않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한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롤랑 바르트는 사람은 작품에서 작가를 죽여야 진정한 의미에서 독자가 탄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자는 오로지 글쓰기를 배합하고 조립하는 조작자, 또는 남의 글을 인용하고 베끼는 필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품을 읽을 때는 저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읽어야 진정한 독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작품에서 작가를 몰아내고, 작품속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느껴질 때 감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공광규의 「폭설」은 바로 나의 이야기고 감정이야!”하고 말이죠.

아래 시 「거짓말」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살아가는 중년의 위선적 행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시를 읽어보면 결론도 거짓말입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대나무는 세월이 갈수록 속을 더 크게 비워가고
오래된 느티나무는 나이를 먹을수록
몸을 썩히며 텅텅 비워간다
혼자 남은 시골 흙집도 텅 비어 있다가
머지않아 쓰러질 것이다

도심에 사는 나는 나이를 먹으면서도
머리에 글자를 구겨 박으려고 애쓴다
살림집 평수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친구를 얻으려고 술집을 전전하고
거시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정력식품을 찾는다

대나무를 느티나무를 시골집을 사랑한다는 내가
늘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이렇다
사는 것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인 줄 내가 다 알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다
나를 얼른 패 죽여야 한다.

— 「거짓말」 전문

넷째, 선배에게 배운다.

위 시에 나오는 대나무의 속성이 식물학적 오류임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대나무의 굽기는 죽순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4년 동안 죽순 키의 상태로 멈춰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가 정지하여 있는 동안 대나무는 뿌리를 깊고 넓게 확보하면서 굽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4년은, 우리의 대학 4년과 마찬가지로 고전과 선배를 공부하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문학은 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생에게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호로 깨닫는 것을 외도라고 하는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을 통해 규범이 되는 선배의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시 쓰기에 금방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새로움은 옛것에서 옵니다. 모든 글쓰기는 옛것을 모

방하는데서 시작합니다. 시 역시 고전과 선배를 흉내 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앞에 언급한 『문심조룡』에서 “고대의 모범을 참조하여 창작방법을 정립한다.”는 말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초기에는 모방을 하고, 이력이 붙으면 자기만의 색깔을 갖추어 가며, 점점 자기만의 독창적 생각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라도 시의 질적 성장과 비약을 위해서는 고전과 선배의 글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고전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동시대 시인들의 좋은 시를 읽지 않고 시를 잘 쓰겠다는 것은 오산입니다.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더라도 매일 잠깐이라도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고전과 선배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몰입이고, 그래야 시 쓰기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공부를 쉬면 후퇴를 합니다. 하여튼 시를 오래 잘 쓰려면 고전과 선배들의 시를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창작자는 자신이 시의 방향을 잘 잡아 가고 있는지, 고전과 선배의 시를 통해서 자꾸 확인해야 합니다.

공자는 述而不作(술이부작)이라고 하여, 자신의 글이 고전과 선배가 이루어 놓은 것을 진술한 것이지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또 ‘온고지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옛 것을 따뜻하게 품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따뜻하게 품어야 아이를 ‘창작’할 수 있는 것처럼. 창작 행위는 창조가 아니라 재활용이라는 것입니다.

서거정은 모든 작품은 표현이나 구상에서 그 나름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시라도 구절마다 전거나 원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가슴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서권기 문자향(書卷氣 文字香)인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교양을 쌓으면 몸에서 책의 기운이 풍기고 문자의 향기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은 독서 경향과 연결됩니다. 윤동주는 백석 시집 『사슴』을 베껴 쓰면서 공부했고, 신경림의 시에도 백석을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정지용을 열심히 필사하며 공부하였습니다.³⁾ 어려서부터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었다는 채 계바라(1928~1967), 그는 살벌한 혁명 전장에서 선배의 작품을 열심히 읽고 자신도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의대를 졸업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의사의 길을 포기한 뒤 쿠바혁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장에서 전사한 그의 유품에는 지도와 두 권의 일기, 그리고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는데, 그가 좋아했던 네루다 등 4명의 69편의 시가 빼곡히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사랑과 낭만 시였다고 합니다.(『체계바라의 훌쭉한 배낭』, 실천문학사, 2009)

3) 최인호(1945~)는 2011년 7월 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작품은 내가 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다. 작가는 받아쓰기 하는 존재다. 그리하여 항상 깨어 받아쓰기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 ...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쓸 것인가 구상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특별히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혁명전장에서조차 고전과 선배의 시를 읽고 베끼면서 죽는 순간까지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배낭 속에는 언제나 괴테, 보들레르, 도스토예프스키, 네루다, 마르크스, 프로이트, 레닌 등의 책들이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걸 보면 생계를 위한 직장고 가사, 육아를 이유로 시 읽기와 쓰기를 게을리 하는 것은 모두 핑계일 것입니다.

겨울 아침에 소리 없이 쌓인 마당의 흰 눈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흰 눈과 지식은 모르는 사이에 쌓인다고 합니다. 고전과 선배의 시에 관심을 갖고 들어가다 보면 온 몸으로 시가 가득 올 것입니다.

아내를 들어 올리는데 마른 풀단처럼 가볍다	
수컷인 내가 여기저기 사냥터로 끌고 다녔고 새끼 두 마리가 몸을 찢고 나와 꽤맨 적이 있다	
먹이를 구하다가 지치고 병든 경정 우는 암사자를 업고 병원으로 뛰는데	
누가 속을 파먹었는지 헌 가죽부대처럼 가볍다. - 「아내」 전문	

위 시는 독일의 시인 브레히트를 공부하여 얻는 것입니다. 여성이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는 출산과 육아기입니다. 시 「아내」는 제 아내가 육아기에 실제로 아파서 병원으로 옮기느라 들었던 체험을 시로 형상한 것입니다. 부부를 밀림의 사자로, 밥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경쟁 현실을 밀림으로 비유한 시입니다. 그러나 독일 브레히트의 「나의 어머니」라는 시를 읽지 않았으면 이 시를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브레히트가 1920년에 쓴 시입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땅 속에 묻었다./ 꽃이 자라고 나비가 그 위로 날아갔

다./ 체중이 가벼운 그녀는 땅을 거의 누르지도 않았다./ 그녀가 이처럼 가볍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짧은 이 시의 ‘가볍다’나 ‘고통’이라는 어휘가 병든 아내의 가볍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만나면서 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가죽부대’라는 말 역시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뒤지다가 만난 어휘입니다. 아마 황지우의 어느 시에도 몸을 가죽부대에 비유한 대목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도 불경을 열심히 읽은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앞의 시 「별곡」 역시 김삿갓의 시를 읽어서 쓴 것입니다. 여행 중 어느 집에서 밥을 얻어먹다가 가난한 주인이 밥풀이 똥똥 뜨는 뚝은 죽을 내오며 미안해하자, 김삿갓은 “나는 밥그릇에 비치는 청산을 좋아한다오.” 한테서 얻은 착상입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말대로 독창성은 출처를 감추는 기술입니다. 고전과 선배의 시를 읽되 거기에서 매이지 말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인들이 고전을 읽고 시를 써서 명작을 남겼습니다.⁴⁾ 아래 시 〈미루나무〉는 바로 고전인 『논어』와 『장자』를 읽지 않았다면 이 시를 쓰지 못했을 겁니다.⁵⁾ 시집에 실지는 않았지만, 「식물서사」⁶⁾라는 시를 쓰기도 했는데, 이는 『논

4) 윤동주의 〈서시〉는 〈〈맹자〉〉를 열심히 읽어서 쓴 것이다. ‘진심-상’에 보면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굽어서 사람에게 대해 부끄럽지 않다(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라는 구절에서 가져온 것이다. 윤동주는 〈〈맹자〉〉를 좋아하고 맘에 드는 구절을 공책에 베끼기도 했다. 윤동주의 부끄러움의 시학은 〈〈맹자〉〉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영의 〈풀〉은 〈〈논어〉〉 ‘안연’ 19절에 나오는 ‘草上地風’에서 발상을 한 것이다. 거기에 “군자의 덕이란 것은 바람과 같고 백성의 덕은 풀과 같은 것이다. 풀잎이 위로 바람이 불면 풀잎은 반드시 바람이 부는 대로 춤을 추며 휘어질 것이다.”라는 공자의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총담사의 〈안민가〉 역시 〈〈논어〉〉 ‘안연’ 11절 “군자의 행동거지는 군자답게, 신하의 행동거지는 신하답게, 부친의 행동은 어버이답게, 자식의 행동은 자식답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에서 가져온 것이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조〉 역시 “하나가 쫓아면 일체가 쫓아며, 십법계가 동시에 쫓아지 않는 것이 없다”는 불경을 읽어서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 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는 명구를 얻었을 것이다. 모두 수사법상 용사의 수법이고 인유의 방식이다.

5) 『논어』 〈용야〉편 6절에서 “공자께서 중국의 인물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경작용 얼룩소의 새끼가 털 색깔이 붉고 뿔이 반듯하다면, 비록 제물로 제사에 쓰지 않으려고 해도 산천의 신이 그냥 내버려두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잘난 놈이 먼저 제사용 소로 선택된다는 말이다.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우리 속담과 같다. 〈선진〉편 13절에 “민자건은 옆에서 모셨는데 온화하고, 자로는 씩씩하고, 염유와 자공은 강직하니, 공자께서 기뻐하셨다. 다만 자로 같은 이는 온당한 죽음을 얻지 못할 듯하다.”라고 했는데, 자로와 같이 다혈질이고 씩씩한 사람은 제 명에 죽음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자로를 경계한 말이다. 자로는 칼싸움을 하다가 일찍 죽었다. 〈헌문〉편 6절에서도, 남궁괄이 공자에게 물었다. “예는 활을 잘 쏘았고, 오는 육지에서 배를 밀고 다녔지만, 모두 제 명에 죽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와 직은 몸소 농사를 지었는데도 천하를 소유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더니, 남궁괄이 밖으로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로구나! 이 같은 사람이여! 덕을 숭상하는구나, 이 같은 사람이여!”라고, 활을 잘 쏘고 육지에서 배를 밀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힘은 힘으로 망한다는 이치를 말하고 있다. 『장자』 〈인간세〉편에 ‘목수의 눈에는 쓸모없는 나무라야 오래 산다’고 하였다. 〈소유요〉편에는 장자오 헤시라는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데, 헤시가 “크기는 컸지만 온통 뒤틀리고 가지는 비비꼬인 가죽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목수는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네. 장자 당신이 꼭 그 같은 나무야.”라고 하자, 장자가 맞선다. “나무가 쓸모없다고 말하면 안 되네. 곁에 거닐거나 나무 밑에서 소요하거나 누워 자도 되는 것 아니겠나. 도끼에 찍힐 일도 없고, 해를 끼칠 일도 없는데, 어째서 쓸모가 없다고 괴로워할 일인가?”

어』를 읽다가 서정적 충동이 일어나서 쓴 것입니다. 자한 22편에 “식물이 싹은 도중에 잎이 말라서 꽃이 피지 않는 것도 있으며, 꽃은 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데, 이 부분을 읽어가다가 공자가 틀림없이 인생을 비유적으로 말한 식물이야기를 시로 써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앞 냇둑에 살았던 늙은 미루나무는
착해빠진 나처럼 재질이 너무 물러
재목으로도 뿔감으로도 쓸모없는 나무라고
아무한테나 핀잔을 받았지

가난한 부모를 둔 것이 서러워
영영 울던 사립문 밖 나처럼
들판 가운데 혼자 서서 차가운 북풍에 울거나
한여름 반짝이는 잎을 하염없이 뒤집던 나무

논매던 어른들이 지게와 농구를 기대어놓고
낮잠 한 숨 시원하게 자면서도
마음만 좋은 나를 닮아 아무것에도 못 쓴다며
무시당하고 무시당했던 나무

그래서 아무도 탐내지 않아 톱날이 비껴갔던
아주아주 오래 살다가
폭풍우 몰아치던 한여름
바람과 맞서다 장쾌하게 몸을 꺾은 나무.

— 「미루나무」 전문

6) “싹이 나서도/ 잎을 볼 수 없는 식물이 있고// 꽃이 피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식물이 있다// 열매를 맺어도/ 열매가 떨어지는 식물이 있다// 통도사 후원/ 연화문 단청을 배경으로 핀 홍매 닮은// 내 누이 하나가 그랬다/ 내 옛 여자 하나도”(『식물서사』 전문)

7) 즐거움의 향유는 사실 유교적 전통에서도 낯설지 않다. 공자의 어록인 <<논어>>는 즐거움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즉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이며, 러시아어 번역은 “배우고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면 즐겁지 아니한가”이다. 군자란 자기완성의 인간이고 유교는 자기완성의 종교이다.(이현우, <<로자의 인문학 서재>> 산책자, 2009. 17쪽 참조)

다섯째, 재미있게 만든다.

재미없는 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독자들이 버림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시를 배우고 읽고 씁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정치를 하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시를 배우고 쓰다보면 돈이 벌리고 명예가 얻어지고 정치가가 되기도 하겠지만, 시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똑같은 행복이어야 합니다. 행복의 다른 말은 재미이며, 재미를 통해 사람은 기쁘거나(說=悅) 즐겁게(樂)됩니다.⁷⁾ 공자는 “아는 것 보다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시를 알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든 소설이든 결국은 재미있는 글이 오래 살아남게 됩니다. 중국의 학자가 반만으로도 천하를 다스린다고 하였고, 일본의 학자가 천하제일서로 불렸던 『논어』처럼, 우리 민족 제일서인 『삼국유사』처럼, 장자의 우화처럼, 이솝의 우화처럼, 불경과 성경의 이야기처럼 재미가 있어야 독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재미있게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비극론인데, 정설은 아니지만 희극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 권력자인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희극론을 없앴다고 합니다. 민중들이 즐거워하면 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그러면 성직자들의 권위와 직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인간을 단순한 신앙인으로만 봤는데, 단테 같은 작가들이 인간을 신앙인이자 시민으로 보는 글을 써대면서 종교와 성직자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문인이면서 현실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단테는 종교 권력의 미움을 사는 바람에 피렌체에서 영구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추방인 거죠.

하여튼 재미는 권위 있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재미가 있으면 권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특히 평등을 싫어하는 가부장제 권위의 사회에서는 얼굴에 웃음을 띠면 좀 시시한 인간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저도 왜 실실거리느냐고 아버지에게 혼나기도 했고, 선배들에게 “왜 쪼개냐?”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소나 웃음이 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독일의 푸라이부르크대학 헬가 코스트호프 교수가 연구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농담을 많이 하는 이유는 권력과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 웃기면 위험하다고 합니다.(Focus, 2009.8.25) 이처럼 웃음과 권력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량사 한 채」는 재미있게 구성한 시의 사례입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안으려는데
 “나 얼마만큼 사랑해!”라고 묻습니다
 마른 명태처럼 늙어가는 아내가
 신혼 첫날처럼 얘기하는 것이 어처구니없어
 나도 어처구니없게 그냥
 “무량한 만 큼!”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무량이라니!
 그날 이후 뼈와 살로 지은 낡은 무량사 한 채
 주방에서 요리하고
 화장실서 청소하고
 거실에서 티비를 봅니다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날은
 목탁처럼 큰소리를 치다가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들어온 날은
 맑은 풍경소리를 냅니다
 나뭇대로 침대 위가 훈훈한 밤에는
 대웅전 꽃살문 스치는 바람소리를 냅니다.

— 「무량사 한 채」 전문

위 시는 실제 아내와 있었던 대화를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한 허구입니다. 무량사(부여군 외산면 소재)라는 고향 부근에 있는 절을 여러 번째 가던 중 창작동기가 발화하여 쓴 것입니다. 필자가 술을 먹거나 아이들 공부 문제로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은 집안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대웅전 꽃살문은 〈조계사회보〉에서 사진으로 본 것을 시 쓰는 과정에서 떠올린 것입니다. 꽃살문 스치는 바람소리는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 상상이 갈 겁니다. 필자는 이 구절을 생각해 내고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웃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래 시 「걸림돌」은 시중에 떠도는 우스갯소리를 가져다가 재미있게 구성한 것입니다. 이 시를 본 독자들은 대부분 재미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중에 떠도는 우스갯소리를 제가 도둑질 한 것입니다. 떠도는 우스갯소리도 시를 쓰겠다는 자세(관심과 애정)를 가지고 들으면 재미있는 시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과학이나 예술장르와 마찬가지로 역시 시는 일상에서 창조한다는 원리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비관주의자에게 걸림돌은 낙관

주의자에게는 디딤돌이 된다(루즈벨트)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걸림돌이 없다면 세상을 제멋대로 살다가 스스로 망가져서 인생을 조기에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시를 핑계로 술집과 카페에 들락거리느라 결혼도 못하고, 지금 형편없는 물골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아는 스님께 행자하나를 들이라 했더니
 지옥 하나를 더 두는 거라며 마다하신다
 석가도 자신의 자식이 수행에 장애가 된다면
 아들 이름을 아예 ‘장애’라고 짓지 않았던가
 우리 어머니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나
 인생이 안 풀려 술 취한 아버지와 싸울 때 마다
 “자식이 원수여! 원수여!” 소리치지 않으셨던가
 밖에 애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중소기업 하나 경영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누구를 들이고 둔다는 것이 그럴 것 같다
 오늘 저녁에 덜 돼먹은 후배 놈 하나가
 처자식이 걸림돌이라고 푸념하며 돌아갔다
 나는 “못난 놈! 못난 놈!” 훈계하며 술을 사주었다
 걸림돌은 세상에 걸쳐 사는 좋은 핑계거리일 것이다
 걸림돌이 없다면 인생의 안주도 추억도 빈약하고
 나도 이미 저 아래로 떠내려가고 말았을 것이다.

— 「걸림돌」 전문

여섯째, 현실을 건드린다.

요즘 시가 지겹다고 합니다. 시에 현실감과 생동감이 없어서입니다. 시의 내용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인의 현실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없으니 시인의 경험세계가 박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생활 경험이 없으니 글도 횡설수설이고 목표와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문단의 시가 난해 난잡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됩니다.

유몽인은 시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시어를 아무리 잘 다듬어도 정작 사상적 내용과 그 지향성(志)이 결여되면 시를 알아보는 사람이 이를 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는 시속을 일깨우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풍물이나 정치만 읊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백 년 전 선배가 줌 시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40여 년 간 조선시대 문단을 장악했던 서거정은 여행과 현실에서 배우지 않은 문장은 곧 낡고 썩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문장은 기백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요즘 시들이 황설수설에다 난해 난잡 불통인 것은 시인이 현실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 정치, 경제, 역사적 현실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시인 자신이 회사원, 학생, 주부이면서도 자기 존재와 무관한 시를 써대니, 이는 시를 잘 못 가르치고 배워서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문예공모전 심사평에 실린 글을 보기로 합시다.

“흔히들 ‘문학’하면 비현실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일탈한 환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잘못된 문학교육의 영향 탓이다. 문학은 환상적인 것도 있지만 극히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고뇌를 그린 것도 포함한다. 왜 이런 따분한 말을 하느냐 하면, 산문 부분 응모자들이 너무 규격화된 소재가 많은 대신 정작 기대했던 은행 안에서 전개되는, 혹은 뒤편한 온갖 재미있는 소재들은 드물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다. 가장 많은 소재가 가족(특히 어머니와 아버지), 그 다음이 여행기, 산행 등등이다. 마치 은행 생활 이야기를 고의로 피하는 듯하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문학적인 소재의 황금창고를 외면한 채 다른 화두를 열심히 찾는 게 안타깝다. 물론 은행이야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땀 냄새가 스민 글이 진정한 문학이라는 것이다. 특히 산문을 읽노라면 은행원들은 세상과 담벽을 쌓고 업무가 끝나면 등산이나 여행만 다니는 것 같다. 시야를 넓혀 보통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보기 바란다.”(임현영, 2009년 금융인문화제 산문부문 심사평)

바로 현실의 자기 경험이 시 소재의 황금창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학교육의 잘못으로 대부분 황금창고를 보지 못합니다. 시인은 현실 상황에 놓인 자기의 존재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 쓰기를 시작해야 자신의 이야기이니 잘 쓸 수 있고, 그래야 현실감과 생동감 있는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즉 여성시인은 성차별 속에 사는 여성의 문제, 주부시인은 가사와 육아 등에 대한 전담 문제, 교사시인은 교권에 대한 시비, 회사원 시인은 임금이나 고용 등 노동권리, 문학청년은 실업이나 등록금(과거 소 1마리에서 현재 8마리 팔아야 대학졸업)로부터 시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감과 생동감 있는 시를 쓰기 위해서는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인(물론 시인이라고 다 올바른 지식인은 아니지만)이라면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인간을 살기 어렵게 하는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따져야 합니다.

아래 시「얼굴반찬」은 핵가족화 세태를 풍자한 시입니다.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 넣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얼굴반찬」 전문

돈과 경쟁으로 요약되는 자본주의는 핵가족화를 넘어 가족의 해체를 낳고 있습니다.⁸⁾ 여럿이 모여 밥 먹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가족끼리 부딪히며 사는 재미도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얼마전 대한민국을 ‘신경쇠약직전의 대한민국’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냈습니다. 치솟는 이혼율, 세계 최고의 자살율, 입시에 짓눌린 학생, 폭음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⁹⁾

한국 현실은 가족이 흩어져 돈벌이를 하느라 정신없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학생들은 입시 경쟁에 몰려 어려서부터 사설학원에 돈을 퍼주러 다닙니다.¹⁰⁾ 그러니 집안에 식구들이 모일 기회가 적고, 그러니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생 최고의 문제는 바로 사는 재미이며, 재미있어야 행복하고, 행복해야 성공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가난할수록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주로 경제문제로 이혼을 하여 독신으로

늡어죽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특히 가정을 구성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남자가 자살을 4배나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청춘남녀들이 돈과 직장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당연히 출산율도 낮은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성 소외자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핵가족화의 결과는 식탁(밥상머리)에서 전승되는 전통문화와 가족공동체의 정신을 단절시킵니다. 오래가다보면 민족도 국가도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영어화, 미국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식탁문화가 없으니 아이들도 말씨부터 싸가지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에게 가장 오랫동안 붙어사는 켡거루족이면서도 부모 부양의식이 서양보다 훨씬 낮습니다.¹¹⁾ 물론 부모를 모시는 것¹²⁾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서양보다 효¹³⁾를 강조하는 동양 전통문화가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잔존하는 유가 전통, 큰 절도 많고, 교회가 부동산가게나 노래방보다 많은 우

8) 기러기아빠, 갈매기아빠 문제. '나홀로 지방에...위기의 주말아빠' "한국경제의 심장인 지방의 산업단지에 갈수록 홀아비들이 늘고 있다. 자녀 교육 때문에 홀로 지방에 머무는 이른바 '갈매기아빠'의 증가는 가정해체와 기업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사회기반의 붕괴라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 많다." "퇴근하면 갈 곳이 없어요. 볼꺼진 빈방에 열쇠로 문 따고 들어가는 것이 가끔은 끔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잠도 잘 안와요. 그래서 술이 친구가 된 셈이죠."(당진군 송악 유흥가가 밀집한 선물집에서 만난 3년차 갈매기) "취재 중 만난 갈매기 아빠들은 10 중 8,9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갈매기아빠들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면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노컷뉴스 2009.7.27) '남편 떼질 할까, 속소 불신검문' '아내는 불륜 의심에 서울에서 지방까지 단속 원정길/ 자녀교육 때문에 시작했는데 비행청소년 된 사례도'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그 길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곤 했죠. 술집 마담과 섬성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난 다음부터 불시에 검문을 하는 거죠. 남편 옆에서 두세 시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마음을 놓을 수 있어서..." "어떤 경우는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남편이라는 나의 존재가 일상 속에서 잊히는 거죠. 친구 만나러 간 다거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서로 무관심해지는 거죠." "지금은 정상이더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가정을 이어가다보면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미 가족과 가정을 잃은 갈매기들의 경고의 울음소리다. (2009.7.28 노컷뉴스)

9) NYT "이혼·자살·입시·폭음... 한국은 신경쇠약 직전", "한국은 국가적으로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인 듯하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 6일 진단한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타임스는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 및 상시적인 걱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치솟는 이혼율과 학업에 짓눌린 학생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및 근무시간 뒤에도 폭음을 권유하는 남성 위주 기업문화 환경 등을 한국인의 삶의 조건으로 예시했다. 타임스는 매일 30여명이 자살하고 있으며 연예인과 정치인, 체육인은 물론 재계 지도자들의 자살도 거의 일상사가 됐다면서 특히 최근 카이스트 대학생 4명의 자살이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소개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미국에 비해 3배가 높다. 1999년 이후 10년 동안 2배가 늘었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심리치료를 꺼리는 한국인의 사고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타임스는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성형수술에 이르기까지 서구 혁신기술을 강박적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정작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치료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치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비싼 치료비, 점술이나 굿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의 선호 등을 심리치료를 꺼리는 이유로 꼽았다. 타임스는 또 조선대 심리학과 김형수 교수의 말을 인용, "한국에선 자신의 감정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금기시되는 분위기여서 우울증이 오더라도 대개 참는다"면서 "정신과에 가면 평생 (정신병자라고) 낙인찍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심리상담을 원하는 사람들도 의료보험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민간 병원을 선호하고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전했다. 서울의 정신과 전문의 박진성씨는 "환자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화치료보다 약물치료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임상심리학과 오경자 박사는 "한국인들은 심리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아직 좋은 모델이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심헤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2011.7.7

리나라가 포르노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로 망가진 것도 이런 식탁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¹⁴⁾

그래서 '식탁권'을 회복은 중요한 문제입니다.¹⁵⁾ 지금은 식탁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 식탁은 재벌과 외국자본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탁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강한 세계인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가정에서 식탁 지키기는 매우 정치적인 실천입니다. 정치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효도를 하고 집안일을 잘 하고 자기 직무를 잘 하는 것 자체가 정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식탁을 잘 지키고, 집안 살림을 잘 하는 것도 정치적 실천일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 엷고, 토목공사를 잘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선거를 잘 하는 것이 정치활동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 빈곤층 증가, 중산층 감소, 실업률 상승, 과열 학교 경쟁 격화, 저출산과 고령화¹⁶⁾로 가정에서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식탁 주변으로 식구들을 모으지 못합니다. 결국 가족과 공동체 중시, 인간중심의 경제를 설계하고 추진할 때 식탁에서 '얼굴반찬'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강한 식탁을 지키려면 유통혁명이 필요합니다. 이걸 굉장한 어려운 혁명이면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식료품점은 물론 학교급식 등 식품유통을 통해 식단마저 재벌이 차지하고 있고, 다국적 자본인 외국계 식음료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형 유통업체가 지역상권까지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리는 돈은 지역에 기여하지 못하고

10)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주일 공부시간은 49.4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3.92 시간보다 15시간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평일 학습시간이 4시간 22분으로 우리나라 8시간 55분보다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학점수는 544점(한국 542점)으로 2점 높다고 합니다.(헤럴드경제, 2009.8.6) 우리나라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은 21조 600억이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경제위기와 관련 없이 계속 증가

11) '부모를 모시겠다' 응답; 영국 66%, 미국 64%, 프랑스 51%, 한국 35%. (한국일보, 2009.3.30)

12) 세계의 장수촌 다큐멘터리 취재차 방문한 미국의 노인의학연구소장 레오나드 푼에 따르면 순창 장수촌의 비결을 전통적 대가족제도의 노인부양체계로 듬. 노인을 직접 모시는 아들 며느리와의 따뜻한 가족애 덕분이라는 것. 마음이 편안해서 장수하는 것이라고 함(서울 신문 2009.6.27)

13)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는 효이다. 유명한 사회학자 토인비는 "한국이 인류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효 사상"이라고 했다. 199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미국 시카고대학)은 "한국인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와 효 사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한국의 재도약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코리아 브랜드 블로그)

14) "포르노에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나라는 '한국'?" 영국의 한 잡지가 한국을 '정욕의 나라'로 꼽았다. 2010년 2월 2일 영국 BBC방송이 발행하는 잡지 '포커스'(www.bbcfocusmagazine.com) 2월호에 따르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포르노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로 꼽았다. 이 잡지는 영국 연구원들이 세계 35개국을 대상으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정욕, 탐식, 탐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 등 6가지 죄악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게재했다. 정욕은 포르노 산업에 대한 국민 1인당 연간 지출액을 기준으로 측정했다. 잡지가 지목한 '정욕의 나라'는 한국에 이어 일본, 호주, 핀란드, 중국, 브라질, 체코, 대만, 미국, 캐나다 등의 순. 한국은 또 탐식 부분에서도 6위. 7대 죄악의 종합순위는 8번째(city News, 2010.2.2)

있고, 고용된 사람들의 노동조건도 형편없습니다. 옛날처럼 도시나 지방 곳곳에 작은 상점이 나 서점, 꽃집을 운영하면서 생계와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유통개혁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타벅스 자본은 점포를 월가, 런던, 서울 순서로 많이 두고 있는데, 스타벅스 점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일수록 금융위기가 심각하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¹⁷⁾ 그만큼 우리나라에 잦은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고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래 시는 이러한 우리나라 노동자의 슬픈 일상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당신, 창의력이 너무 늙었어!”

사장의 반말을 뒤로 하고

뒷굽이 닳은 구두가 퇴근한다

살 부러진 우산에서 쏟아지는 빗물이

굴욕의 나이를 참아야 한다고

쳐진 어깨를 적시며 다독거린다

낡은 넥타이를 끌어당기는 비바람이

술집에서 술집으로

걸레처럼 끌고 다니는 밤

빗물이 들이치는 포장마차 안에서

술에 젖은 몸이

악보도 연주자도 없이 운다.

— 「몸관악기」 전문

15)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 가까운 어휘를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배운다.”(하버드대 연구결과) “가족과 식사 횟수는 흡연 경험율, 음주 및 마약 경험율과 반비례한다.(컬럼비아대학 연구결과) 수많은 연구 결과는 가족과의 식사가 단순한 배만 채우는 자리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현대의 정주영가는 새벽 5시 가족식사 시간에 경영수업을 했으며, 정치 명가 케네디가는 지도자의 자질을 식탁에서 익혔다.(한겨레, 2009.7.25 SBS 스페셜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안내글)

16) 미국 인구학자인 듀크대 필립 모건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법 가운데 하나로 대가족제도의 강화를 제시했다. 세대 안의 동거를 강화하거나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일본의 사례처럼 시부모와 사는 경우 양육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아진다고, 그리고 현재 한국의 교육 체계가 부모의 집중 투자가 필요해 아이 낳기를 포기한다고 함(2010.5.28 연합뉴스)

17) 스타벅스 상점 미국 맨해튼에만 200여 곳, 영국 런던 256곳, 한국 수도권 209곳, 스페인 마드리드 48곳,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48곳, 덴마크 2곳, 네덜란드 3곳,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0 곳. (한겨레 2008.10.22)

위 시는 젊어서는 마구 부러먹다가, 임금이 높아지는 나이가 되면 임직원을 몰아내는 우리나라 자본의 행태를 서정화 하여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니 서정화는 현실을 폭로하는 시인의 전략입니다. 물론 수익을 목표로 하는 자본가에게 도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부를 창출하는 수단, 상품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적절한 조정과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지만, 국가권력을 자본가들이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술집에서나 어디서나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중년의 제일 큰 걱정과 스트레스는 노후문제라고 합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다 사회복지가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1.2년(2009.4)에 불과합니다.¹⁸⁾ 공장 정문 앞에 걸어놓은 직원을 가족같이’라는 구호는 위선입니다.

근속연수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0개 국가 가운데 세계 1위입니다.(년간 2,316시간. 회원국 평균은 1,787시간. 국민일보 2009.4.23) 그러면서도 직장인의 70%가 “난 근로빈곤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층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해서 ◇퇴직시 생계곤란 ◇부채감당이 어려워 ◇고용불안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빈곤층이 생기는 원인을 부익부 빈익빈을 유도하는 사회적 구조(47.1%), 높은 생활비(46.3%), 불안정한 고용형태(40.5%)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Am7 2009.8.6)

자살율도 세계 1위입니다.(10만 명당 45.2명-남 32명, 여13.2명, 회원국 평균 24명. 국민일보 2009.4.23). 국민의 대부분인 임금노동자들과 임금노동자에서 일찍 떨어져 나온 영세자영업자들이 살기가 아주 어렵고 좋지 않은 사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18) 국내 대기업들의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1.2년이며, 5년 전보다 1.3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국내 기업의 ‘2008년 평균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직원들의 근속연수는 평균 11.2년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KT’가 19.8년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 포스코 19.1년 ▲ KT&G 18.9년 ▲ 현대중공업 18.3년 ▲ 여천NCC 18.2년 ▲ 국민은행 17.4년 ▲ IBK기업은행 17.2년 ▲ 한국전력공사 16.7년 ▲ 한국외환은행 16.5년 ▲ 현대자동차 16.0년 순이었다.(2009.3.12)

월급쟁이가 되어서는 도대체 인생 전체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기가 불가능한 사회이고, 평생 노동시간도 엄청 깁니다. ‘한국남, 퇴직 후 11년 더 노동’ ‘OECD 국가중 최고-실질은퇴, 71.2세… 노후 연금 부족 때문’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공식은퇴 연령은 60세이지만,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실질은퇴연령은 71.2세였다.… 반면 대다수 서구 선진복지국가 국민은 오히려 실질은퇴연령이 공식은퇴연령보다 낮아, 일찌감치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퇴직 후 노동기간이 지나치게 긴 이유는 노후 생계유지에 필요한 연금 액수가 충분하지 않아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OECD 평균 실질은퇴연령 63.5세. (노컷뉴스, 2009.7.27)

일곱째, 쉽게 쓴다.

요즈음 시들은 형설수설하고 난잡 난해해서 도저히 읽기가 불편합니다. 소통 불가인 불통문학입니다. 어느 정도 시를 공부한 사람이 읽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는 현실을 헛갈리게 하고 몽롱하게 하고 지워버립니다. 이런 문학은 곧 꺼지는, 사라지는 거품입니다.

이러한 거품을 따라다녀서는 평생 올바른 시를 쓸 수 없으며, 자기 존재를 배반하고 정체성이 없는 시만 쓰다가 일생을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과 무관한 언론과 문예지를 선호하는 것은 자기 삶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들 언론과 문예지 기득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회, 정치, 경제적 상상력의 시들입니다. 현실에 놓인 인간 실상을 똑바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입니다.

제 졸작 「소주병」을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는 제가 직접 술을 마시다가 창작동기가 발아하여 썼습니다. 어느 겨울, 대천해수욕장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서정적 충동이 일어나서 쓴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소주를 많이 마셨는데, 왜 유독 이때 서정적 충동이 일어났을까? 아마 분위기 때문일 겁니다. 고향과 가까운 해변, 포장마차, 겨울, 바람, 뒹구는 소주병. 그리고 또 하나 시인의 준비된 자세일 것입니다.

술병은 잔에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 「소주병」 전문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연애를 하겠다는 욕망이 없으면 연애가 안 되듯, 시를 써야겠다는 욕망을 갖지 않으면 시가 안 됩니다. 대천에 왔으니 시를 한편 써야겠다, 빈 소주병 입을 지나가는 바람이 뽁뽁하고 우는 소리를 아버지의 울음소리로 연결시키면 좋은 시가 되겠다, 이런 욕망이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런 욕망의 결과 계속 따라주기만 하고 버려지는 소주병이 아버지의 삶과 같구나 하는 비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소주는 국민의 술이자 민중의 술입니다. 또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가족을 위해 돈을 더 벌고, 큰집에 살고,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늙어서 버려지는 결핍과 실패의 산물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적 지위나 빈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인생은 대부분 실패와 결핍의 인생입니다. 물론 결핍은 욕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결핍도 없겠죠. 그러나 욕망이 없는 인간은 아마 죽은 인간일 겁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많은 다른 아버지들처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애썼습니다. 결혼 후 상경해서 실패하고, 낙향하고, 다시 도시를 떠돌다가 낙향하여 광산으로 떠돌고, 결국에는 농촌에 정착해서는 아침저녁으로 일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폐암에 걸려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서 가래침을 뱉어내다가 5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자신의 소주 마시기 체험, 자주 술에 취하여 실패한 인생을 한탄하시던 아버지와 병든 아버지의 말년 기억을 교직시켜 한편의 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독자들은 시를 읽고 자신의 아버지가 된 자기 자신이나 아버지에 대한 경험 속으로 빠질 것이고, 비슷한 경험의 연대를 통하여 공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공감은 창작자와 독자 사이에 일어나는 느낌의 주파수가 같을 경우에 오는 것입니다.

시는 언어를 가지고 인생을 모방하는 예술입니다.(아리스토텔레스) 저는 〈소주병〉에서 제 자신과 아버지의 인생을 모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는 인생의 ‘경험’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문과 운문(시)의 차이, 즉 인생의 사건을 모방하면 산문이 되고, 인생의 감정을 모방하면 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¹⁹⁾ 모방은 다른 말로 재현과 반영입니다.

졸작 「운장암」은 쉽고도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운장암은 제 고향 뒷산 너머에 있는 오래된 작은 암자입니다.

풀 비린내 푸룻푸룻한 젊음 스님은

법당 문 열어놓고 어디 가셨나

19) 산문과 운문의 차이는 쌀을 재료로 하는 밥과 술, 인간 행동의 걷기와 춤추기, 언어의 말과 노래의 차이일 것이다.

불러도

불러도

기척이 없다

매애

매애

풀언덕에서 염소가

자기가 잡아먹었다며

똥구멍으로 염주알을 내놓고 있다

— 「운장암」 전문

언어는 소통을 목적으로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문장은 소통이 우선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글은 미숙한 표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인식까지 부족하면 최하급의 문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고를 쓰고 나서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잘 될 때까지 고쳐야합니다.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퇴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퇴고는 『논어』에 나오는 절차탁마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절차탁마는 옥으로 그릇을 만들 때, 옥을 자르고 끌고 쪼고 가는 것과 같이 정성을 들인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인의 서정적 충동을 문장으로 정확히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어의 불충분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끊임없이 말을 바꾸어가며 새롭게 표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시가 수 없이 많은 것은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언어의 불충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 쓰기는 아무리 정확히 표현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실패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원효는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언설은 가명(假名)에 지나지 않으며, 실상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말을 불신하면서도 말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말이 아니면 이치를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철스님이 평생 공부하여 깨달았다는 진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언어로 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을 시인은 이해할 것입니다.

시는 의도의 전달입니다. 고려 이제현은 시를 마음먹은 것을 표현하는 지향의 발현이라고 했고, 한때 무의미시를 주창했던 김춘수조차 시는 관념, 정서, 욕망 등을 함축성 있게, 음영이

질게, 미묘하게 실감을 가지도록 전달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를 아무리 뜯어 보아도 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것은 독자의 잘못이 아니라 창작자의 표현 미숙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시는 자기규정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시인만 아는 불통을 전제로 쓰는 시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위 유명하다는 시인, 유명 출판사에서 나온 시를 읽으면서 도저히 해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인이 미숙하거나 잘못 쓴데서 오는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 즉, 감상자인 독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장에서 주방용품인 고무장갑을 손가락이 붙게 만든 기술자와 똑같이 불량품을 만든 창작자의 잘못입니다.

어떤 글이든 읽기 어려운 것은 작가가 충분히 문장에 정성을 들여 절차탁마하는 방식으로 퇴고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나 역시 명망 높은 경제학자로서 아무나 읽지 못하는 어려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중이 알아먹는 쉬운 글쓰기를 강조한 사례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횡설수설과 난해 난잡 불통하는 시를 인정하고 독려하고 양산하는 평론가와 학자와 언론과 문예잡지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러한 허망한 것들을 용기 있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고 아름다운 시를 찾아 읽고 쓸 것을 권고합니다.

삼류문인은 나이 먹어서 늦게 문학공부를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문예지로 등단을 하고, 지방에 거주하고, 문학상을 못 받는 작가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고 괴롭히는 자본과 권력에 아부하고, 순수를 가장한 문학권력에 끊임없이 추파를 보내고, 그들이 주는 상을 명예처럼 받는 작가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상을 받는 사람이 삼류작가다.

조성되어 있는데, 사과배 과수원이란다. 모양은 사과인데, 맛은 배여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다.

길썰을 따라 난 집들은 대체로 둘로 나뉘는데, 조선족 가옥과 한복 가옥이 그것이었다. 조선족 가옥은 대체로 팔작지붕에 기와를 이었고 외양이 깨끗하고 산뜻한데 비하여 한족의 가옥들은 허름한데다가 집 단장도 허술하여 그 구별이 뚜렷했다. 조선족의 가옥은 백의민족다움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조선족은 생활력이 강하여 생활수준이 타민족보다 낮고 자녀 교육도 ‘빡차게’시켜서 그 어느 민족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한다니, 뿌듯한 자부심이 마음에 차올랐다.

주변의 풍광을 살펴보는 사이 차는 선봉령을 넘기 전에, 잠시 길썰의 휴게소에 들렀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니, 이 지방 특산물들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었다. 산삼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버섯, 그리고 백사주, 호골주, 사슴신주, 웅담주 등 정력에 좋다는 술들이 즐비하여 진열되어 있었다. 잠시 눈에 선 물건들을 체험하고 선봉령으로 들어섰다. 산은 깊고 높고 험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악과는 다른 이국적인 모습을 한 산이었다. 특히 산의 능선이 우리 것처럼 아기자기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어서 웅혼함과 활달함이 느껴졌다. 능선이 하늘을 한 칼에 베고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시원하게 뻗어 있었다.

산의 기상은 이러한데 그 산이 품고 있는 수림 또한 이국적이고 몽환적인 데가 있었다. 낙엽활엽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가문비나무가 일직선으로 하늘을 향해 곧추 뻗어 있었다. 낙엽활엽수는 노랗게 단풍이 들었는데, 그 나무들은 개별적 영역을 가지고 잎들이 붕긏붕긏 무리를 이루고 합체하여서 그 하나하나가 뚜렷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그 하나하나의 개별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로서의 지위를 엄격히 확보하면서도 어울림을 성취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장대한 산과 어울려 멋진 수림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개별자이면서도 자연스런 어울림은 몽환적인 풍광을 지어내었다.

선봉령은 험준한 산악지대로서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이 일제와 전투를 벌였던 역사적인 곳이면서 발해의 유적을 간직한 곳이다. 김좌진 장군이 일본군을 무찔렀던 청산리 전투로 유명한 곳도 이 선봉령을 넘은 화룡현이다.

굽이굽이 감아 오르고 내리기를 몇 번을 거듭한 끝에 선봉령을 넘어서 길 가 한국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안도현 이도백하로 향했다. 이도백하는 백두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중심 도시이다. 도시라곤 하지만 이제 개발이 한창인 마을이었다. 중국인들이 백두산에 관심을 두고 찾기 시작하면서 이도백하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란다.

이도백하를 지나 드디어 백두산 지역으로 들어섰다. 차는 백두산 미인송과 자작나무들이 울창한 수림을 뚫고 백두산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선봉령 꼭대기에서 저만치 바라보이던 백두산을 직접 올라가 보게 된 것이다. 차에서 내려 입장권을 받아드는 순간,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

고 말았다. 9월 중순에 백두산에는 눈이 내린다는 것이다. 눈이 내리는 날은 우리가 택해서 가는 북파길로는 백두산을 오를 수가 없단다. 벌써 초입에는 비가 들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장백폭포나 관람하고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다.

‘장백산화산국가지질공원’라는 쓰인 큼지막한 돌이 길손을 맞이하였다. ‘백두산’이 아닌 ‘장백산’이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부대끼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나무 패널로 길을 내고 계단을 낸 길이였다. 저만치서 천지에서 발원하여 장백폭포를 통과한 백두의 물은 산을 타고 힘차게 흘러내렸다. 백두산 가는 길썰마다 조망대를 만들어 백두산을 감상케 하였다. 한 지점에 서서 백두산을 올라다 보니, 낮은 곳은 사스래나무가 주황색 단풍잎을 달고 띠를 이루어 백두의 허리를 감고 돌았다. 흰 것과 노란 것이 어슴푸레 어울려 수채화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그림을 좀 넓혀 바라보면 사스래나무 띠를 발치에 두고 현무암의 위용이 장관을 이루며 백두산 천지를 에워 두르고 형상을 띠고 있었다. 백두산의 현무암괴는 하늘을 향해 있으며 하늘을 제압할 만큼 웅대하고 기개로웠다. 금방이라도 사자후를 터뜨리며 지상으로 내려올 듯하기도 하고, 장백폭포의 물줄기를 감아 틀어 하늘을 후려칠 것만도 같다. 백두산의 위용은 백의민족의 웅혼한 정신이며 민족 얼의 원천이고 본질이다. 그 위용의 한면으로는 현무암이 역겹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부서트린 세석이 산을 타고 산사태를 이루고 있었다.

계단을 몇 번 올라 장백폭포 앞에 섰다. 그러나 거리는 멀어 장백폭포가 질러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달문을 빠져나온 천지의 물은 천문봉과 용문봉 사이의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승사하를 따라 흐르다가 장백폭포에 도착한다. 장백폭포 물은 68m의 수직 절벽을 따라 떨어진다. 계곡의 양편은 수직에 가까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암석에 발달한 주상절리와 빙하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백두를 쪼개고 흘러내리는 장백폭포 아래서 사진 몇 장만 남기고 가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 작다. 그러나 우리의 선열 가운데는 이 백두산과 이 장백폭포를 바라보며 광복의 날을 빌었을 것이고, 그 날을 위해 한 마음 가다듬으면서 일제와 싸우기를 맹세한 이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산과 이 폭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맹세해야 하나 모를 일이다. 작은 내가 그저 부끄럽다.

허망한 마음을 수습하여 발길을 돌리니, 일행이 백두산 온천수에 삶은 계란을 건넨다. 백두산을 오르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계란 하나로 달래며 사스래나무 그늘을 밟고 백두산 언저리를 떠났다. 소천지라 이름 붙은 작은 연못에서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말이다.

이도백하의 ‘금수학국제주점’에 여장을 풀었다. 석식을 마치고 김문기 사장님의 초청으로 이도백하 양꼬치구이를 먹었다. 이 자리에서는 술이 서로 건네지고 주홍에 못 이겨 흥성스러운 노래판을 밤늦도록 벌였다. 잊지 못할 한때로 기억되리라. 이튿날 새벽녘에 호텔 앞의 공원을 산책하였다. 공원에 백두산 미인송이 빼곡히 들어섰는데, 그 모습이 가히 낙락장송의 기운을

그대로 지냈다. 백두산이 키워낸 나무라 일컬음에 조금도 손색이 없으리만치 미인송의 품격은 나무의 군자다웠다. 이 숲을 해가 돋도록 걸으면서 미인송의 기운을 한껏 들이마셨다. 이국의 땅에서 웰빙한 아침이었다.

이튿날 이도백하에서 용정으로 돌아오는 길, 선봉령을 넘으면서 유성호 교수의 특별한 강의를 들었다. 이육사와 윤동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명쾌하게 밝혀준 강의였다. 그의 강의는, 이육사 선생이 남에서 북으로 지향하는 저항의 길을 걸었다면 윤동주 선생은 북에서 남으로 이르는 저항의 길을 걸은 데서 그 차이를 짚어냈다. 이육사 선생은 유교에 기반을 둔 집안 출신인데 비하여 윤동주 선생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집안 출신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작품 면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테면 이육사 선생의 ‘광야’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윤동주의 ‘별 헤는 밤’에서는 유교적 세계관이 스며 있다는 탁견을 제시한 것이 그 예일 터이다. 윤동주 선생의 ‘서시’ 속의 ‘별’은 육사 선생을 가리킨다는 유 교수의 판단에 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의 강의를 마음 깊이 새겨들었다. 육사 선생의 저항이 행동적이 방식을 취했다면 윤동주 선생의 저항은 내면적 정서로 맺어졌다는 내용으로 유 교수는 강의를 끝냈다. 차는 평강들을 가로질러 용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용정은 윤동주 선생이 배움의 길에서 한때 머물던 곳으로 그의 모교인 대성중학교가 있다. 이상설 선생이 설립한 이 학교에 들러 용정에서 펴져나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더듬어 보았다. 이미 중국 역사의 한 부분이 되고 만 역사이어서 회한도 없지 않았지만, 만주벌에서 일으킨 웅혼한 민족의 발자취를 만나는 것으로도 감동적이었다. 거기서 사진으로나마 육사 선생을 뵈게 된 것도 기억에 오래 남을 일이다. 대성중학교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윤동주 선생이 공부했던 교실에 들러 그의 흉상과 마주했다. 상당히 미남인 선생 옆에 다가앉으니, 선생의 깊은 시선과 높은 민족혼에 닿지 못함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준수한 외모에 스스로 왜소해지는 나 자신에 절망했다. 칠판에 그려놓은 <서시>의 악보를 읽을 줄 안다면 그 노래나 한 번 불러 보고 용정을 떠나고 싶었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라서 얼른 기념관 안을 둘러보고 윤동주 선생의 흉상과 ‘서시’가 새겨진 시비 앞에서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돌아섰다.

용정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도문으로 향했다. 도문으로 가는 길에 연길 모아산 산림공원 안에 세워진 연길 기상탑을 바라보는 감흥도 가졌다. 용정에서 연길을 거쳐 도문으로 가는 길은 긴 구룡지대를 뚫고 지가가고 있었다. 그 구룡들은 크고 활원하여 사람을 한없이 작게 만들어 버렸다. 구룡의 부드러운 선은 와불처럼 자비롭고, 눈길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넓어 경외로웠다. 조물주는 그 손길이 구구해서 어디에선 작게, 어디에서는 이토록 크게 자연을 빚어 놓은 것이다. 조물의 힘에 인간은 그저 고개 숙일 뿐이다. 야성이 꿈틀거리는 그 구룡에도 인간은 끼어들어 집을 짓고 옥수수를 키워내고 있었다. 구룡이 옥수수이고 옥수수가 구룡이었다.

구룡지대를 지나고 산협을 끼고 강을 몇 개 건너는 사이 길손을 태운 차는 도문에 도착하였다. 도문의 두만강은 흠뻑이었다. 지난해에는 두만강 기슭에서 회령을 바라보며 ‘토지’의 서희와 길상이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 용정으로 들어가던 것을 기억했는데, 지금은 직접 두만강 물 위에 떠 보게 되었다. 대나무로 만든 뗏목에 발동기를 단 것을 타고 20여 분 두만강을 유영했다. 흠탕물에 손을 잠그니 물은 흠을 품었으되 깨끗했다. 배가 떠난 곳은 중국 땅인데, 그 맞은편은 북한 땅이다. 강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아 30미터쯤이나 될까 싶었다. 그 폭을 두고 국경이 지나가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금이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 배를 붙여 북한 땅, 아니 조국의 흠을 만져 보고 싶었다. 가능하지 못한 일을 생각한 끝에 할 수 있는 것은 김정구 선생의 노래를 불러보는 일뿐이었다. 함께 탄 일행들과 그 노래를 어울려 부르면서 가슴에 맺힌 감정을 두만강에다 풀어냈다.

아하, 무사히 건넌을까, / 이 한밤에 남편은 / 두만강(豆滿江)을 탈 없이 건넌을까? (중략) 소금실이 밀수출(密輸出) 마차를 띄워 놓고 / 밤새 가며 속 태우는 젊은 아낙네, / 물레 져던 손도 맥이 풀려서 / ‘파!’ 하고 붙는 어유(魚油) 등잔만 바라본다.

소금 밀수를 위해 두만강을 건너가는 남편을 둔 아내의 불안한 심리를 노래한 <국경의 밤> 한 대목이다. 일본 놈들에게 쫓겨 두만강을 건너던 술한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심경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일절이다. 소금실이 밀수꾼만이겠는가. <홍염>의 ‘문 서방’, <탈출기>의 ‘나’, <붉은 산>의 개망나니 같은 의로운 사나이 ‘삼(정익호)’도 일본 놈들의 번뜩이는 눈길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 간도 땅을 밟았으리라.

도문에서 두만강을 바라보면서 아팠던 마음을 수습하고 차에 오르니, 상해에 이르는 하늘길이 아득히 길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해 도착이 늦은 시각이어서 상해의 야경을 둘러볼 시간을 얻을 수 없었다. 지친 몸을 호텔에 누여 폭 쉬었다. 하룻밤을 호텔에서 보낸 다음 날, 상해 중심가인 푸둥 지구의 마천루들을 주마간산 격으로 살펴보면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향해 달렸다. 청사에 들어서자, “良心建國”이란 편액이 길손을 맞는다. 이층으로 올라가 김구 선생의 상을 밀랍으로 만들어 모신 방을 거쳐 청사 안을 훑어보았다. 몇 년 전의 시설보다 깔끔하게 다듬어졌고 공간도 넓게 확장되어 있었다. 옛날 그 자리라서 중국인 거주지와 뒤섞여 있어서 임시정부 청사로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 청사를 거쳐 간 이 나라의 독립투사들을 기억하면 절로 가슴이 여며진다. 술한 민족 독립투사들이 이곳에 머물렀거나 스쳐지나갔을 터인데, 문득 민족의 혁명가로서 ‘아리랑’의 주인

공 김산이 가슴을 뚫고 나왔다. 어쩌면 체 게바라만큼이나 치열하게 민족을 위해 투쟁했을 김산이 아니었던가. 젊은 날, 닐 웨일즈의 글을 읽던 기억이 새로웠다. 이육사 선생은 의열단에 가입하여 투쟁의 길을 오롯하게 걸으셨던 분이다. 그는 누구의 영향으로 그 길을 자처해서 걸었을까. 의열단 선언문을 쓴 단재 선생과는 무슨 인연은 없었을까. 단재는 의열단의 부탁을 받고 〈조선혁명선언〉을 썼다. 단재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라는 것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라는 명제를 내걸어 민족사관을 수립,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한 분이며 독립동가였다. 임시 정부 어느 곳엔가는 그분들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란 믿음과 이육사 선생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며 임시정부 청사를 떠나왔다.

촉박한 일정에 쫓기며 이육사 선생과 인연을 맺은 루신 선생의 흔적을 찾아 루신 공원으로 갔다. 공원에 이르렀으나 루신 선생의 묘와 유물 전시관을 둘러볼 시간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찾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짓기로 하였다. 윤봉길 의사는 이 공원에서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 파견군 대장 등을 즉사시키는 거사를 치르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총살된 분이다. 선생이 거사를 일으킨 장소에 표지석이 서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기념관이 서 있었다. 기념관 안에는 선생이 총살을 당하던 당시의 사진과 유물이 남아 있었다. “丈夫出家生不還” 선생이 남긴 유목이다. 단숨에 써 내려간 유목 한 자 한 자에는 추상같은 선생의 의기와 독립 의지가 서려 있었다. 선생의 거사 표지석 앞에 준비해간 제물을 진설하고 일행이 고개 숙이고, 선생의 뜻을 기려 추념하였다.

루신 공원을 끝으로 이번 연변 문학제도 마무리지어졌다. 서둘러 푸둥 국제공항에 이르러 입국 수속을 마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 몸을 태우니, 나른한 피로감이 몸을 엄습하였다. 비행기는 제주 상공을 거쳐 인천 공항에 이르는 두 시간을 비행하게 되어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하늘을 날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 여행의 마침표를 찍듯이 해가 서녘 하늘 멀리 한 점 불덩이로 걸려 있었다.

광야에서 절정까지

—제5회 중국연변이육사문학제를 다녀와서

강 수 완(시인)

2015.9.18, 금요일 새벽 2시

연변으로 향하는 안동의 첫 발걸음은 늘 새벽 어둠속이었다. 선생의 고향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이 청량산을 돌아 흐르는 낙동강 지류의 검푸른 빛깔이듯이, 시작부터 결기에 찬 흑백의 시간이었다. 마치 이육사문학관 흰 벽면에 걸려있는 흑백사진속의 불룩한 광대뼈와 동그란 안경테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이 일행과 같이 길을 나서는 숙연함과도 같았다.

올해에도 이육사 추모 사업회 권부옥이사장과 이육사문학관장 조영일 시인님, 이육사선생의 유일한 혈육인 이옥비 여사님, 김명호 도의원님과 평론가 유성호 한양대학교수님 및 지역의 문인 사진작가 신문기자와 후원업체의 여러분이 행사에 동행하였다.

인천공항을 떠난 비행기가 바다를 아래에 두고 하늘과 바람 속으로 가뿐히 들자 청포도가 다 익고 지금은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목 놓아 부르고 있을 광야가 저 발아래 어디선가 펼쳐지는 듯 아득한 허공에 숨을 가만 쉬었다.

몇 번 다녀 간 연길 공항이 눈에 익었다. 기념사진을 찍고 버스에 올라 연변대학으로 갔다. 화강석으로 된 정문을 지나 행사장이 마련된 건물로 가니 입구 양쪽에 한복을 입고 기다리는 조선족 학생의 정성스러운 모습이 고왔다. 안내를 맡은 학생과 이 날 사회를 맡은 학생까지도 한복을 입고 있어 우리 측의 권이사장님과 육사선생의 따님이 입고 가신 한복과 잘 어울렸다. 연변작가회의 관계자분의 따뜻한 환영과 반가운 인사로 흔쾌하고도 장중한 문학제가 시작되었다.

먼저 〈저항으로서의 이육사 시와 그 서지적 사항〉의 유성호 교수와, 〈이육사와 중국 현대문학〉의 이상렬 연변대학교 조문학부 교수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달변의 이론과 자료 발표로 이육사 문학의 또 다른 지평을 펼쳐 주신 두 교수님의 담론에 까마득히 쏠려 다니던 시간은 짧아서 더욱 아쉬웠다. 특히 만주별판을 앞에 두고 펼쳐 놓은 이육사, 윤동주 두 저항시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쉽고도 격정적으로 비교해 준 유성호 교수의 일목요연함이 근대문학의 한 면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중국의 현대문학가인 노신과 이육사의 시대적 교우를 통해 이루어 낸 두 문학가의 사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정리한 이상렬 교수의 단단한 이론역

시 현대 중국문학과 닿아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이어서 육사 시낭송이 진행되었다. 손님으로 우대해 주느라 우리 측 시인을 먼저 단상에 올려 주어 차분하게 진행은 하였으나 미리 준비해 간 배경음악이 너무 크거나 혹은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잠시 당혹스럽기도 하였다. 연변작가회의 시낭송회원들의 야심차고도 우렁찬 낭송은 날개를 달고 울울 시의 절정에 오르기도 하여 가슴이 뭉클한 순간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다음은 조선족에게는 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 있는 우리말 우리글을 널리 고취시키고, 중국 전역의 각 대학생에게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펼쳐 보일 수 있는 한글로 백일장을 열어 시와 산문 부문의 입상자를 가려 시상식을 하였다. 혹자는 해마다 적지 않은 상금을 들여 굳이 행사를 진행하느냐고 물어 오기도 한다지만 거기에 대한 이육사문학관장님의 견해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경상북도와 안동시 관계자의 의견은 한결같다. 이 만큼의 예산만으로 한글과 민족정신을 고양 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가 또 어디 흔하겠느냐는 반론에는 별다른 의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문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류와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매년 더욱 활발히 이어져 가길 기대해 보는 마음 간절하였다.

행사장 복도에 준비하게 늘어 선 양국의 시화전이 그 의미를 생생히 전달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자 올해로 네 번째 참가하는 내 의식조차 한 순간 넷물처럼 맑아지고 있었다.

상금과 상장이 수여 되는지라 상품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안동의 하회탈 목걸이와 만년필 볼펜등의 기념품을 따로 챙겨 와 수상자들에게 나누어 주던 도의원님의 파스함이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기운과 함께 문학을 넘어서, 사람 사는 맛과 멋이 새록새록 다가오는 날이었다. 그 날 행사장 강당에 이육사 시인의 혼이라도 오셨더라면 서릿발 같기만 하던 그 눈자위가 연변대학교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저 노을처럼 오늘은 잠시 붉어 지셨을까?

송이버섯과 도수 높은 술과 기름에 섞인 음식들이 한 상 차려진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흥을 돋우는 연주와 노래와 춤이 서로의 거리를 좁혀 주었다. 그 곳은 천년백설이라는 고운 이름의 북한식 주점이었는데 아리따운 북한 처녀들이 음식을 나르고 다시 무대로 나가 여흥을 이끌어 가는 곳이었다. 한 사람이 가진 재주가 몇 가지나 되는지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고전 악기나 현대 악기를 두루 연주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능숙하게 현대 무용을 하다가 곧장 고전 무용으로 바꾸어 도라지타령이나 아리랑을 구성지게 부르기도 하였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이올린으로 경쾌하게 독주한 오페라의 유령이었다. 그 장중하고도 우람한 검은 가면의 유령이 그 곳의 북한 아가씨에게서 발랄하고도 사뿐하게 되살아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민족의 독립 하나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지성으로 살다 간 시인이자 독립가인 육사선생을

따라 이른 이곳에서, 흥에 겨워 마냥 빠져 들기에는 부끄러운 저녁이 깊어 가고 있었다.

2015.9.19.토요일.

버드나무가 우거진 연길 시내의 도로와 강변은 우리나라 70년대 달력의 사진처럼 멋드러졌다. 새마을운동이 불붙으면서 신작로를 넓히느라 베어 내고 없는 미루나무가 이곳에서는 당당하게 거리를 일렬로 걸어가고 있었다. 햇살에 반짝이는 앞사귀는 강물에 어리는 물이랑처럼 짹하고 날카로운 속도로 뒤흔쳤다. 그 사이를 지나 백두산으로 가는 차 안의 일행도 맑은 날씨에 천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푸르고 깊었다.

순희 냉면집과 용점 타이어 수리집 한글 간판을 지나 허름한 붉은 벽돌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마을을 지나니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 밭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곳에 이제 막 익어가기 시작하는 수수밭이 이어졌다. 산은 야트막하게 어깨를 견고 얹드려 있고 그 곁에 실개울이 살고 그 정다운 개울 곁에 사람이 모여 살았다. 붉은 땅인가 싶으면 콩밭이 펼쳐졌고 콩잎이 다문다문 누렇게 물들고 있는 쪽으로 한동안 벼가 익어가는 논 자락이 단오 부채처럼 화려락 펼쳐졌다. 이 척박한 듯 풍요로운 땅을 향해서 식솔을 이끌고 옮겨 왔을 독립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지금의 나날이 고맙고 부끄러워지는 것은 나쁜만이 아닐 것임에랴. 너른 논이 많다는 건 쌀이 좋다는 일 아니던가. 이곳에서 생산되는 입쌀이 최고의 품질로 인정을 받는다는 현지 안내인의 설명이 곧 따랐다. 청나라 때 황제에게 바쳤다는 오곡전이 이곳 쌀이라니 들판의 넓이로 보아서는 최고품질을 자랑할 만 하였다.

질 좋은 진상미가 흘러 간 옛날의 왕조를 떠올리게 한다면, 사과배의 등장은 지금의 풍요를 가져 온 작물이었다. 사과와 배를 교잡한 과일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장점만을 취한 육종학으로 크기는 작으나 물이 많고 달아 중국내에서는 이곳의 토질이 유일하게 풍작을 이루어 유명하다고 하였다. 봄에 사과배 축제를 연다고 하니 연분홍과 흰빛이 섞여 피는 과수원이 무릉도원 못지않은 듯 펼쳐지는 봄날이 미리 그리워졌다. 일망무제의 사과밭이 또 그렇게 아련히 창창을 지나가고 있었다.

붉은 천막을 친 간이 검사소를 지날 때 마다 운전사와 안내인이 내려서 통행허가증을 확인 받았다. 제복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괜히 서늘하였는데 이는 민족의 영산이라는 백두산을 바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북파로 비켜 오르는 우리의 처지가 서럽고 주눅 들어서였을까? 정치적인 이야기나 주장은 되도록 자제해 달라는 안내인의 요청이 농담처럼 있었던 걸 보면, 당당하지 못한 조국의 아픔을 어깨에 지고 다녔을 사람들의 독립을 향한 열정 또한 저 백두산 천지의 질푸른 물처럼 심오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니 뻗속이 얼얼하였다.

서러운 마음을 아는 듯 산 빛깔이 점점 단풍으로 물들어 갔다. 하얀 몸피로 하늘을 향해 곤

두 서 있는 자작나무 사이로 눈이라도 올라치면 닥터 지바고와 라라를 태운 마차가 내리 닫고, 파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는 백석의 흰 바람벽과 아름다운 나타샤와 응양응양 울고나 있을 흰 당나귀가 지나가기도 하였다. 자작나무 흰 숲은 꿈결처럼 한동안 잎들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다.

단풍 사이로 계곡이 깊어지더니 굽은 길을 도느라 차 허리도 점점 깊게 꿈을 거렸다. 순간 빗방울이 듣는가 싶더니 차 유리에 단풍이 겹쳐 이지러지도록 비가 왔다. 모네의 수련같이 단풍은 왔다가 서둘러 나갔다. 사람들이 작게 수련거렸다. 이번에는 백두산을 못 보는 건지 미리 조바심을 내는 몇은 육사선생님 은덕으로 천지는 보게 해 주소 웃으며 기도를 했다. 선생의 따님이 가장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혈육의 정이 이토록 단풍 보다 붉을 줄이야!

해가 잠깐 나서 날이 들다가도 저녁 붉은 시어미 모양 흐리다가 또 비가 오기를 거듭하는 중에 결국 천지는 눈이 와서 통행이 금지 되었다는 전갈을 받았다. 그리고 보니 두꺼운 겨울옷을 갖고 오라던 준비품목이 맞는 모양이었다. 눈으로 얼어 있는 백두산이 첫가을 무렵이라니 과연 긴 겨울을 보내고 맞는 백두산의 옹혼함이 느껴졌다. 올해 초여름까지도 눈이 녹지 않은 천지를 다녀왔다는 안내인의 말이 절로 믿기는 순간이라 혼자 슬며시 웃었다.

결국 신령스럽다는 천지는 못 오르고 장백폭포의 장쾌한 물줄기를 보러 갔다. 입구는 작년보다도 말끔하게 정리 되었고, 그야말로 천지개벽처럼 현대식 호텔이 줄 지어 새로 생겨나거나 공사 중에 있었다. 7백 개의 객실이 넘는다는 배 모양의 세련된 호텔 건물이 누워 있는 용처럼 웅장하고 태평스러웠다. 노천온천까지 들인다니 그 규모는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았다.

도로는 온통 공사 중이라 파헤쳐진 흙더미 위로 큰 차들이 오고 갔다. 공사 중이라는 안내판 하나 없이도 그 큰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일행이 탄 차를 비롯하여 지나는 차들이 빙 돌아서 가도 불평이 없는 걸 보니 태평스러운 중국은 분명한 일이었다.

몇 년 전 샹그릴라를 다녀 온 적이 있는데 신문에서 보던 그 풍경은 어디로 가고 넓은 도로와 건물과 자동차와 사람들로 넘쳐나는 도시를 보면서 해발 4천 미터를 넘는 산 위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 백두산 초입이 그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못 하는 일이 없었다. 조선족이 지은 집과 한족이 지은 집은 지붕 생김새가 서로 확연히 달라서 금세 구별이 되던 산 아래 마을이 차라리 정겨운 일이었다. 마당이나 좁은 틈 어디에든 곡식이나 채소를 널어 말리는 집은 틀림없이 조선족이라는 말도 고개가 끄덕여졌으니, 보랏빛 구절초와 키만 멀쭉한 돼지감자 꽃이 노랗게 살랑거리던 조금 전 지나 온 들판이 당장 그리워졌다.

장백폭포는 성품이 시원스러운 남성 같았다.

그 앞에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물줄기를 넣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는 틈에 연변작가

회의 소속인 김승중 시인은 미리 들고 간 물병에 물을 담아 내려왔다. 아뽕싸, 허겁지겁 손바닥으로 물을 펴 마시긴 하였으나 그 물을 소담스레 받아 올 생각을 농친 것이 아쉬웠다. 조용한 시간에 차라도 한 잔 우려 마셨으면 좋았을 일이었다. 물의 기운이 있다면 분명 백두산의 기운도 있었을까를 생각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천지를 못 보는 대신에 소천지를 보러 갔다. 은환호(銀環湖)라 이름이 붙은 그야말로 작고 아담한 호수였다. 단풍이 든 나무들이 일제히 못 바닥을 굽어보느라 목이 한 자나 물에 잠겨 얼굴이 붉어졌다. 그 아래 하늘이 한 겹 용단을 깔아 배경을 풀어내었다. 일행들은 폴짝 뛰어 오르며 환하게 사진을 찍었다. 멀리 또 가까이에서 깔깔거리는 단풍이 빗속에 얼비쳐져 소천지는 다시 여인의 노방 속저고리가 되었다. 돌아 나오는 길, 장백폭포를 흐르는 물이 나무들 발목을 차갑게 적시는 사이로 꿈처럼 물안개가 풀리며 길을 만들다가 지우다가 하였다. 그 물길이 키워 낸 일급수 천지물이 깨끗한 생수 백산수로 만들어 지고 있다니, 올 여름 제주 오름에서 만났던 삼다수 물의 청정한 원천과 겹쳐져 민족의 영산 백두와 한라를 순식간에 물길로 동글게 엮어 놓았다. 백두의 차갑고 거친 물살이 키워 낸 산천어 탱탱한 살점으로 저녁을 먹으며 고래 한 마리가 유영하는 깊은 잠에 천천히 들었다.

2015.9.20. 일요일

간밤 꿈에 고래 등 같은 산을 보았다. 육산(肉山)이 아니라 골산(骨山)이었다. 기운이 장대하고 쾌활하여 일어나니 온 몸이 청량하였다. 아침에 금강송이 짙은 소나무 길을 걸었다. 호텔 앞 미인송 군락지였다. 부드럽거나 과격하게 운동하는 한 무리 사람들 곁을 지나니 절로 호쾌하였다. 호텔 로비에 아름답리 배나무로 만든 큰 찻상이 사람처럼 누워 있는 걸 보았다. 무늬가 기하학적으로 이루어져 몹시 아름다웠다. 문리(紋理)가 귀면(鬼面)이거나 겹꽃문양으로 이루어져 잘 생긴 흑단만큼이나 오래 눈길을 붙잡았다. 미인송에 미인목이 서로 안팎으로 어울렸다.

아침을 먹고 용정으로 떠났다. 길가에 세워 둔 트럭에 붉은 천을 깔고 수박을 파는 모습이 보였다. 색깔의 대비가 선명하여 슬펐다. 속을 파 낸 수박의 붉은 얼굴이 광활한 중국 땅 같아 두려웠고, 주머니에 손을 찌른 까만 얼굴의 주인이 조국을 떠났던 애국지사를 선대로 둔 조선 동포 같아 눈물이 났다.

차로 세 시간이 걸린다는 길에 다시 수수밭이 지나가고, 옥수수 밭이 한참을 지나가고, 더러 소나 말이 상냥하게 풀을 뜯거나 물가에 서성거리는 모습을 지나서, 윤동주 시인이 다녔다는 대성 중학교에 닿았다. (윤동주 시인이 학교에 다녔을 때는 대성중학교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길림성 용정중학교로 바뀌었다.) 사각모를 쓰고 한 손에 원고 뭉치를 든 시인의 흉상이 흰 돌

로 세워져 있었다. 별의 시인이라는 가슴의 글씨가 별빛 찬란한 민족학교라는 기다란 간판의 새로 생긴 금빛 글씨와 더불어 눈길을 끌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한복을 차려 입은 처녀가 흑백사진이 즐비한 자료실을 이리저리 옮겨 가며 설명을 해 주었다. 이곳은 운동주 시인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과 애국지사들이 공부를 하며 거쳐 간 곳으로 대성 중학교와 이상설 선생 기념관이 있었다.

운동주 시인의 일생에 관한 내용과 기념전시관에서 세로로 쓴 〈서시〉 친필 원고와 특히 신랑하기 그지없이 생긴 말간 얼굴의 시인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운명적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낮은 구름에 살짝 기대어 있는 생가 터를 떠올려 보았다.

시인이 공부했던 책상위에 흉상을 세워 둔 운동주 교실에 이르자, 문득 교토 동지사 대학교 안에 〈향수〉의 정지용 시비와 나란히 서 있던 시인의 시비 생각이 간절하여졌다. 술 한 잔을 따르고 고요히 절을 올렸던 몇 해 전 봄날의 기억이 순식간에 대한해협을 건너 황해를 지나 이곳 용정까지 따라 와 주었다. 교정을 나오는 벽에 시인의 생애와, 하루 종일 글씨를 공부하여도 짝 자 한 자 밖에는 더 못 쓴다는 〈참새〉시 전문이 째액째액 적혀 있었다.

연길로 향하는 길. 독립 운동가들이 일경의 눈을 피해 모임 장소로 썼다는 비암산 꼭대기의 큰 우산모양 일송정 소나무는 말라 죽고 후에 세운 정자만 아득히 차창 밖으로 보여 쓸쓸할 때쯤, 우리는 다 같이 선구자 노래를 부르며 천년을 두고 흐른다는 해란강에 울컥거리는 가슴을 실어 두만강으로 먼저 보내주었다. 다만 우리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심어 자라 난 작은 키의 소나무가 울울창창 잘 자라서 저 애국가 가사의 남산 위 소나무와 더불어 만대를 지켜 나가길 빌 뿐이었다.

도문의 두만강에 이르렀다. 두만강 푸른물이 아닌 흙탕물에서 대나무 뗏목을 타고 강폭을 거슬러 올라 북한과 중국의 접경이 다리모양 되어 있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 내려 왔다. 중국인에게 도문교라 불리는 그 다리는 중국과 북한을 잇는 철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경계를 정확히 나누어 검은 철을 한 곳이 중국 땅이고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시멘트 색깔은 북한 땅이라고 하였다. 버드나무가 낭창하게 뿌리를 담그고 있는 강변 기슭 초소에 충을 멘 앓된 얼굴의 북한병사가 보였다. 버드나무 잎이 바람에 뒤척일 때 마다 총구처럼 번쩍여서 꽤 씁하였다.

강 하나를 사이로 나무가 별로 없는 민둥산의 북한 땅 남양이 자꾸 눈에 걸려 하릴없이 강물만 바라보다가 이동백 시인에게 두만강 물에 손 한 번 씻을 것을 권해 드리고 얼른 사진을 찍어 드렸더니 환하게 웃어 주셨다.

수더분한 산 모습과 시름없이 흐르는 강을 보노라니 독립을 위해 그토록 희생 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두 나라로 나누어진 조국을 보며 얼마나 울분에 젖어 참담할까를 도리 없이 또 생각해 보았다. 바람에 몸을 뒤집으며 까부는 버드나무 흰 잎사귀가 역새와 나란히 살고 있는 두

만강이 사람보다 한참 윗길인 것만 같아서, 부끄럽고 무안한 맘에 강변에 모여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틈에 슬쩍 섞여 들어 한바탕 놀고 나왔다.

연길공항으로 가서 상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 늦은 오후였다. 이육사 선생의 만손자가 마침 가족과 함께 상해에 살고 있기에 우리 일행들을 맞으러 나온다고 하였다. 상해에 도착한건 밤이 깊어서였다. 알밤 같은 어린 아들 셋을 데리고 나온 장손 내외는 여리여리한 모습이었다. 고단한지 잠에 빠져 호텔에 도착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아들들을 업고 안고 민망해 하는 내외를 안쓰러워하는 어른 또한 이육비 여사님이였다. 친정조카를 향한 내리사랑이 서늘한 상해의 밤을 한결 따스하게 보듬어 주었다. 음력 팔월 여드레 달이 하늘에 말갭게 떠 있었다.

2015.9.21. 월요일

아침 열시 오십분 쯤, 상해 임시정부청사에 다다랐다. 10여 년 전에 다녀갔지만 여전히 애잔한 공간이었다. 양심건국(良心建國) 휘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열망을 고스란히 전해 주고 있었다. 얼마 전 상영 되어 큰 관객을 모았던 영화 암살의 한 배경에서도 크고 선명한 그 글씨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김구 선생의 동그란 안경 너머로 수많은 다짐의 말들과 피의 목숨들로 바꾸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주권의 내 나라를 향한 마음들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글씨와 태극기를 형상화 한 붉고 푸른 색깔의 건물 상징 조그마한 마크가 눈물겹도록 반갑고 고마웠다. 그 아래를 지나가는 이육사 선생의 따님과 장손의 나란한 모습을 살며시 사진으로 담으며 꽃처럼 그윽해지는 순간이 느껴졌다. 입장권을 들고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도 흐트하고 고와서 또 몰래 사진 몇 장을 찍었다.

건물 내부를 오르는 나무 계단의 하얗게 칠 벗겨진 사진을 찍다 보니 가슴이 먹먹해 졌다. 저 좁고 빠그덕 거리는 계단을 밟으며 고뇌와 울분에 찬 시간을 보내었을 귀한 조선의 청장년들 목숨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허리가 안 좋아 자주 바닥에 쪼그리고 앉는 이육사 문학관장님의 눈앞에 문득 김구 선생의 집무실 안내판 글씨가 나란한 걸 보았다. 해란강의 앞 강물이 흘러 가 두만강 뒤 강물에게 조근조근 속삭이듯 다독이며 이 나라의 역사와 후손을 이끌고 따르며 흐르는 모습으로 보이는 순간이었다. 임시정부요인들의 오래 된 사진 속, 결기에 찬 얼굴들을 들여다보다가 감격에 겨워 일행은 단체 사진을 찍었다.

홍구(韞山) 공원으로 발길을 이었다. 매헌(梅軒) 윤봉길 의사의 생애 사적 전시관으로 가는 길이었다. 매화 가지가 서로 엇갈려 환하게 피어 있는 입장권 사진이 선생의 호와 닮아 있었다. 그러나 꽃받침이 붉은 빛깔의 매화라서 녹색 꽃받침의 기개 높은 청매였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었다. 이왕이면 청명한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는 지금의 배경 보다, 흰 눈 속에 홀로 꽃을 피운 꽃꽂하고 고아한 절개의 배경이길 함께 욕심내어 보았다.

연못을 오른쪽으로 끼고 안으로 더 들어가니 커다란 돌에 새겨진 윤봉길 의사의 비석이 있었다. 미리 마련해 간 제수로 술을 따르고 일행을 대표한 몇 분이 흰 꽃 몇 송이를 차례로 올리며 절을 드렸다. 음복을 하던 중에 자손번성 의미가 있는 대추 세 알을 이육사 선생 따님 손에 가만히 들려 드렸더니 여사님은 그걸 또 열린 장손의 손에 슬며시 옮겨 주셨다. 내리 사랑을 받아 든 장손의 눈빛이 그만 초생 달처럼 아련해 지는 걸 멀리서 보고 있자니 저 양복 주머니 속 대추알은 오늘 저녁 기어이 알밤 같던 어린 세 아들의 입 속에 보름달처럼 뜨겠구나를 알 수 있었다.

붉은 칠을 한 나무 기둥과 기와를 가지런히 이고 있는 매현 기념관 건물은 아담하고 선명하였다. 안쪽에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다는 마지막 사진이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 한 가운데를 크게 출렁이게 만들었다. 그 명문 곁으로 양 손이 나무형틀에 형꺾으로 질끈 묶이고 흰 천으로 눈을 가린 채 이마 한 가운데 총을 맞은 사진이 있어서 한 동안 발길이 묶이고 말았다. 그 날의 의연함을 끝까지 같이 했던 형장의 나무 기둥이 여러 개의 웅이를 한처럼 품고 벽에 기대어 있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에 찾아 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서릿발 문장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칼날 같은 그 말썸에 뒤흔치조차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나약하고 비겁할 대한의 사람들이 어디 있으랴.

하늘을 찌르는 높은 빌딩과 우람하고 매끈한 건축물의 항구 도시 상해를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금융과 무역의 세계적인 큰 도시로 우뚝 섰지만, 마천루 아래에 조국독립을 위해 스러져 간 애국지사들의 터전이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글로써, 교육으로써, 귀한 목숨으로써 각자가 지켜 낸 대한민국의 앞날이 다가 올 한가위 달처럼 높고 아득하고 사방 환하기를 빌어 보았다. 그리하여 까마득한 어느 날 처음 하늘이 열리던 그 때, 비로소 큰 강물이 길을 열어 와 백마 타고 올 초인 한 사람을 목 놓아 기다려 보는 일 아니겠는가. 상해를 떠나는 비행기 아래의 바닷물이 안동을 떠나던 새벽 하늘빛으로 검게 출렁이고 있었다.

시화전 | 안동 이육사문학관 회원

- 공광규(초청시인) 소주병
- 강수완 몸
- 김경숙 섬
- 김명자 연등
- 김용무 운산역
- 김희선 뽕꽃
- 이용섭 부재(不在)
- 이위발 꽃길
- 장효식 시인과 사유思惟
- 조영일 이중섭

소주병

공 광 규(초청시인)

술병은 잔에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몸

강 수 완

트임 기법 몸 껍질로 사는
나무의 연대기를
세상의 모든 어머니라 부르기로 하자
거칠고 튼 손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거두어
푸른 가지로 자란 우리가
일생인 山 하나에
통째로 뒹 산字를 쓰게 만드는 일
나무의 몸이 나의 혈족이었구나.

섬

김 경 숙

달과 별이 동행한 아름다운
이 곳,

바람이 분다.

까닭 없는 서러움에

날 부르는
소리 허공에 흩어지고
시간을 사이에 놓고 그대와 나
마음은 오고, 가고

머리 위 떠 있는 별처럼
음악이 흐르는 순간은
그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밤이 새도록
노래 할 수 있을까,

이 섬에서, 우리는……

연 등

김 명 자

부처님 오신 날
천년 고찰 봉정사
대웅전 앞마당

줄지어 매어 달린
꽃등 밑을 헤집고
구석자리 빈틈 찾아
연등 하나 걸어 놓고

불경은 외지 않고
내 가족 이름만
이름만 중얼대다

벼락 치듯 등 때리는
범고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도망쳤다

연등에 불 켜지면
욕심뿐인 속마음
보일 것만 같아서

운산역

김 용 무

백년 된 쌍둥이 향나무
첫날의 기적소리 매달고 섰다

평행선 다라 끝없이 가고 있는 마음
소년으로 가는 길
흰 교복 단발머리 소녀가 뛰어오는
여름아침 등곶길

이제는 간이역

아득한 세월 건너온
붉은 노을이 곱다

똥꽃

김 희 선

보이는 그대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들리는 그대로만 헤아리지 않는다면
때로는 아픔 속에도 향기가 깃들인다.

어머니 고이고이 닦아주던 유년의 꽃
나는 왜 향기로 다가가지 못하는가
사랑의 깊이만큼만 피고 지는 저 똥꽃

치매노모 삶을 비벼 노란 물감 풀어놓고
벽에도 이불에도 손으로 그린 그림
신산한 세월의 무게 온 방에 가득하다.

플죽어 웅크린 채 깊이 패인 주름 앞에
“어무이, 똥재이~” 애교 섞인 말 한마디
웃음꽃 눈물범벅되어 온 방이 환해진다.

부재(不在)

이 용 섭

내가 없다
나는 늘 여기 있는데
내 안엔 내가 없다
나도 몰래 내 안에서
나를 지키는 그대
얼굴 없는 그대 때문에
나는 늘 내가 아니다
없는 나를 위해 오늘도
부재의 안부를 묻는다
나는 누군가
산다는 것은 이렇게
끝없는 물음인 것을

꽃길

이 위 발

숨처럼 말랑말랑한
꽃씨가 오랜 시간 땅 속에서
상처와 뒹굴다
물이 스며든 외피에서
손처럼 생긴 파란 싹이
뻗어 나와 꽃이 되듯
꽃이 손에서 빠져 나간다.
물이 빠지듯
손바닥에서 떠난 꽃은
길을 떠난다
그 길을 아는 이 없듯
손이 남긴 따스한
느낌마저도 사라져버린
당신의 빈자리

시인과 사유思惟

장 효 식

어느 술집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시인의 가슴을 가득히 채우고는
스스로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
그 것은 분명 자유였다
간섭받지 않는 사유였다
순간, 고여서 썩어가던 시인의 영혼이
서서히 정화되어 가는 것이 보였다
수도는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슬슬 잘도 넘어가는 술로
자유를 마시는 시인을 보고
흐르는 물도 생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은 돈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리고도 못 본체 한
술집주인의 기막힌 혜안 때문이었다.

이중섭

조영일

남쪽 바람 속에는
혼자 울던 중섭이 있다

바다쪽으로 매단 머리칼을 훑날리며

아이와 꽃게를 그린 울음이 베어 있다

남포동 입구에서 쏟아낸 천진한 눈물

아내가 사라져간 은색의 바다를 끼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질게 베어 있다

시화전 | 중국 연변작가협회 회원

- 길송월 진달래사랑
- 김명순 여름 가을 겨울과 봄
- 김영건 사랑의 참언
- 김진홍 낙화
- 김학송 나무의 언어
- 리명희 그리움
- 림금산 고맙다, 달아...
- 박은화 시골단오
- 박춘월 역새
- 박춘월 진달래2
- 석 화 밥 한술에 절 한번 - 밥시
- 심정호 박바가지
- 장경매 보무래기
- 홍명희련꽃사랑
- 홍명희 회로(回路)

진달래사랑

길 송 월

엄동을 견디며
이른 봄 피운 사랑을
빨간 주단으로 펼쳐서
오늘은 고백하련다

산허리 한 자락 감아 안고
화산처럼 터지는 이 가슴
그대를 향하여
빨강계 불태우련다

저 산에서 타오르는 불덩어리
그것은 말로는 부족하여
꺼내보일수밖에 없는
내 심장인줄 그대는 아는가

여름 가을 겨울과 봄

김 명 순

산은
여름내내 같이 했던 록음의 기억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운다

나무는
지난 가을 함께 했던 락엽의 추억으로
추운 겨울을 견딘다

봄을 기다리는 나처럼

사랑의 참언

김 영 건

더 이상 혼자가 되지 말거라
우리는 둘이다
길은 네 발 한쪽과 내 발 한쪽이
변갈아 가면서 딛고 나가는것이다

더 이상 홀로 서기 하지 말거라
우리는 둘이다
삶의 한팔과 죽음의 한팔 펴고
사과나무 한그루로 서는것이다

더 이상 혼자가 되지 말거라
우리는 둘이다
너의 하늘과 나의 땅으로
지구별이 우리 사랑 감싸주리라.

낙화

김 진 홍

뜨락에 만개한 꽃잎
하나둘 어디로 가나
봄별의 파스함이 그리워
가는봄 따라가겠지

뜨락에 만개한 꽃잎
떼지어 어디로 가나
토실토실 열매위해
여름 찾아 나섰겠지

뜨락에 만개한 꽃잎
하늘하늘 어디로 가나
잃어버린 사랑이 그리워
가을빛이 내려 앉은
들판으로 찾아가겠지.

나무의 언어

김 학 송

나무의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
나무의 언어에는 표정이 있다
나무의 언어에는 바람의 매듭이 숨어있고
나무의 언어에는 달빛으로 발효된 눈물이 고여있다
흔들리며 깊어가는 나무의 일생
나무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젊어있다

그리움

리 명 희

보글보글 프림들이
나무잎을 그린다.
하트도 그린다.
그리고 그리운 너의
웃는 얼굴도 그린다.

너무너무 예뻐서
풍당 뛰어들려다가
너의 얼굴 사라질가봐
한모금 마셨다
그리움을 마셨다.

고맙다, 달아...

림 금 산

오늘 저녁 저 달이 왜 저리 밝지?
가슴이 다 뭉쿨한다
아픔에 마음 모서리가 이지러 질땐
이 가슴이 쓰렸는데
그 쓰린 가슴을 우중충
산그림자로 비껴주더니
그 기슭에 강을 만들어주고
강의 흐름속에 노래도 없해주더니
오늘 밤엔 저렇게 높이 올라
환한 미소를 뽐겨주는구나..
고맙다, 달아
모든 우수는 제맘에 묻어버리고
너무나 오연하게 성큼
수풀을 헤치고 나오는 나의 달아,
오늘 저녁 내 마음은 슬프도록 행복하다...

시골단오

박 은 화

그옛날
떠들썩하던 그네터
연분홍 치마자락 날리며
하늘을 날던 처녀들
지금은
그네타고 어느곳에 날아갔나

하늘에 걸린 빈 그네줄
널뛰기하던 그곳에
단오를 맞은 늙은 총각들
갑순이 그리며
술판이 한창이다
술맛도 쓰거운...

별쫓임 하는 황둥개 눈뜨고 꿈꾼다.

2016년 6월 9일 (단오날)

억새

박 춘 월

손톱이 다슬도록
혼을 찢으면
하얗게 하얗게
아픔 멎는다고 하네

머리 위
흘날리는 언어의 방
무수히 이고
식어가는 계절의 언덕
뜨거운 눈빛으로 넘는

그대 내밀한 노래
한소절만 들어보면
꽃의 맨얼굴
만날수 있다고 하네

진달래 2

박 춘 월

하늘이
열린다
그 처마밑으로
구름이 온다

스치는 연분
별로 떨어지고
그만의 시간 익는 속이
뜨거워라
꺾어도 보지만
결코 범하지 못한다

하늘이
열린다
한낮이 지핀 노을
그위 천사가 머물다 간 자리에
남아있는 미소

밥 한술에 절 한번 - 밥시

석 화

밥그릇 마주 앉아
숟가락 드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밥 한술 떠먹고
고개를 드니
오릇한 밥그릇에
겹쳐 보이는 것이 있다
고봉으로 퍼담은
저 밥 한 그릇
아버지산소도 저 모양새니
가토하고 절 올리고
물끄러미 쳐다보던
지난 봄 청명날이 떠오른다
그래 그렇구나
밥 한술에 절 한번
하루 목숨 챙기는것
저 밥 한 그릇이거니
밥 한술 뜨기전
고개 한번 숙인다
밥 한술에 절 한번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바가지

심 정 호

티없이 깨끗한
고향의 박우물에는
오늘도 주인 기다리며
박바가지 동동 떠있다

반가움에 정가로운 샘물
담뱃 담아 마셨더니
뼈속까지 시원히 적시는
변함없는 고향의 정

어느새 그속에서
해님과 함께 웃으며 반기는
동년의 짜개바지 얼굴들
하나들 박바가지를 채우고 있다

보무래기

장 경 매

하얀 양털 실 세타가
털뭉치 엉켜 달고
빨래감 속에서 걸어 나와
손끝에 매여 달린다

앞뒤로 덕지덕지 달라 붙어
악을 쓰는 저것들
몸이 오싹하게 근질거린다

벼룩시장 굴러 다닌 흔적
전철에 앉아
구석구석 묻혀 온 도시 먼지들
가스불에 데워낸 땀 냄새와
체온에 끓인 찌개 냄새
팔알만한 등지 되어
다닥다닥 손끝에서 오글거린다

드바쁜 겨드랑에 찡겨
나의 하루를 닮은 아픔
참은 날들이 튀기 된 설음
뜯고 뜯고 뜯어도
아침이되면
또 달라 붙을
내 삶의 언어들

(2016. 5. 30)

련꽃사랑

홍 명 희

그리움이 고파서
내일을 쥐고파서
속삭임이 토해낸
핑크빛 고독, 설렘이다

하얀 하늘에만 열리는 가슴
어둠속에서 삼켜지는 떨림...

취해 버렸다
너에게
중독 되었다
너에게

너의 화끈함에
취해서
늦여름 떨림에
중독 되었다

련꽃속의 도고한 애달픔...

회로(回路)

홍 명 희

하늘이
줄기줄기 눈물 흘리고
시린
봄바람이 몸부림 치며

부서진 해님을 움켜쥐고 온다

잊지 못할 연(緣)의 흐느낌일까

새 아침 열리면
아픔을 씻어서 해별에 말리워
어리석은
모자람을 돌이켜 본다

양탈하는
바람에 욕념을 실어 보내고
홀로의 하늘을 품으려 한다

떠나는 연이 흘리는 아쉬운 비명이

육사 시낭송

- 子夜曲(자야곡)
- 絶頂(절정)
- 靑葡萄(청포도)
- 曠野(광야)
- 꽃
- 年譜(연보)
- 잃어진 故郷(고향)
- 喬木(교목)
- 春愁三題(춘수삼제)
-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子夜曲(자야곡)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론데

연기는 돛대처럼 내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

바람 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살이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소리

숨막힐 마음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느뇨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맘에 드리느라

수만호 빛이라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

〈출전:『文章』(1941. 4)〉

絶頂(절정)

매운 계절(季節)의 채썬에 갈겨
마춤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리빨 칼날진 그우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딜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출전:『文章』(1940. 1)〉

青葡萄(청포도)

내 고장 칠월(七月)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 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뻑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출전:『文章』(1939. 8)〉

曠野(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 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여선 지고
큰 강(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꽃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방울 나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北)쪽「쓴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약속(約束)이며!

한 바다복판 용솟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출전:『自由新聞』(1945. 12. 17)

年譜(연보)

너는 돌다리ㅅ목에 쥐왔다..ㄴ
할머니 편잔이 참이라고 하자

나는 진정 강(江)언덕 그 마을에
벌어진 문바지였는지 몰라

그러기에 열여덟 새봄은
버들피리 곡조에 불어 보내고

첫사랑이 흘러간 항구(港口)의 밤
눈물 섞어 마신술 피보다 달더라

공명이 마다곤들 언제 말이나 했나?
바람에 붙여 돌아온 고장도 비고

서리 밟고 걸어간 새벽길우에
간(肝)잎만 새하얗게 단풍이 들어

거미줄만 발목에 걸린다해도
쇠사슬을 잡어맨듯 무거워졌다

눈우에 걸어가면 자욱이 지리라고
때로는 설레이며 바람도 불지

〈출전:『詩學』(1939. 3)〉

잃어진 故鄉(고향)

제비야
너도 고향(故鄉)이 있느냐
그래도 강남(江南)을 간다니
저노픈 재우에 흰 구름 한조각

제깃에 무드면
두날개가 축축이 젖겠구나

가다가 푸른숲우를 지나거든
환환한 네 가슴을 식혀나가렴

불행(不幸)이 사막(沙漠)에 떠러져 타죽어도
아이서려야 앓겠지

그야 한떼 나라도 홀로 높고 빨라
어느때나 외로운 녀이였거니

그곳에 푸른하늘이 열리면
엇저면 네새고장도 될법하이.

〈출전:『주간서울』(1949. 4. 4)〉

喬木(교목)

푸른 하늘에 닿을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어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내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속 깊이 거꾸러져
참아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SS에게 -----

〈출전:『人文評論』(1940. 7)〉

春愁三題(춘수삼제)

1
이른 아침 골목길을 미나리 장수가 길게 외고 갑니다.
할머니의 흐린 동자(瞳子)는 창공(蒼空)에 무엇을 달리시는지,
아마도 ×에 간 맏아들의 입맛(味覺)을 그려나보나 봐요.

2
시냇가 버드나무 이따금 흐느적거립니다.
표모(漂母)의 방망이 소린 왜 저리 모날까요,
쨍쨍한 이 별살에 누더기만 빨기는 짜증이 난 게죠.

3
빌딩의 피뢰침(避雷針)에 아즈랑이 걸려서 헐떡거립니다,
돌아온 제비떼 포사선(拋射線)을 그리며 날려재재거리는 건,
깃들인 옛집터를 찾아 못 찾는 괴롭 같구려

四月五日

〈출전:『新朝鮮』(1935. 6)〉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 한 개의 별을
십이성좌(十二星座) 그 술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니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들 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친(親)하고 그 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미래(未來)를 꾸며 볼 동방(東方)의 큰 별을 가지자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地球)를 갖는 것
아롱진 설움밖에 잃을 것도 없는 낡은 이 땅에서
한 개의 새로운 지구(地球)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목안에 핏대를 올려가며 마음껏 불러 보자

처녀의 눈동자를 느끼며 돌아가는 군수야업(軍需夜業)의 젊은 동무들
푸른 샘을 그리는 고달픈 사막(沙漠)의 행상대(行商隊)도 마음을 축여라
화전(火田)에 돌을 चु는 백성(百姓)들도 옥야천리(沃野里)를 차지하자

다 같이 제멋에 알맞는 풍양(豐穰)한 지구(地球)의 주재자(主宰者)로
임자 없는 한 개의 별을 가질 노래를 부르자

한 개의 별 한 개의 지구(地球) 단단히 다져진 그 땅 위에
모든 생산(生産)의 씨를 우리의 손으로 휘뿌려 보자
영숙(嬰粟)처럼 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찬연(餐宴)엔
예의에 끄림없는 반취(半醉)의 노래라도 불러 보자

염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神)이란 항상 거룩합시니
새 별을 찾아가는 이민들의 그 틈엔 안 끼여 갈 테니
새로운 지구(地球)엔 단죄(罪) 없는 노래를 진주(眞珠)처럼 흘리자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 개의 별일망정
한 개 또 한 개의 십이성좌(十二星座) 모든 별을 노래하자

〈출전:『風林』(1936.12)〉